

월간 충현



1988
9.10

크리스찬의 지성

지식과 지성은 다 같이 학식을 요구하는 면에서 같지만 그 내용과 사명은 자못 다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한 베이컨의 말은 결국 지식을 의미한 것이다.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의 인생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냐고 묻는 것은 지성 작용이다. 지식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을 힘이라고 서슴없이 말하지만, 그러나 그 지식의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지성이 알려 주어야 한다.

지식인이 지식의 힘을 남용(또는 오용)하여 세상을 혼란으로 몰고 갈 때 지성인은 힘으로서 작용하는 지식에 힘을 더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참을 놓아 그 힘을 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을 비판이라고 한다. 지식에는 비판이 없다. 시행착오에 의한 자기 수정이 있을 뿐이다. 비판은 선악, 진위, 아름다움과 추함,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명철이다. 이같은 지성적 비판은 건설을 위한 부정이요, 발전과 악의 추방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요소다. 따라서 비판이 결여된 학문이나 단체, 심지어 교회나 사회가 있다면 그들의 미래는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수분의 공급이 단절된 상태와 같아 건강해 보이거나 병들었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비판은 비난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비난은 부정을 위한 부정이요, 그 동기가 철저히 이기주의적이고 그 방법은 무례하며, 그 목적은 건설이 아닌 파괴에 있다. 비난하는 이들은 언제나 정당성을 주장한다. 논리적 사고를 하는 이라면 정당성은 누구나 주장할 권리가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진리를 가름하는 것은 아니다. 살인배, 치한과 같은 이들도 그들 나름대로 정당성을 주장한다. 예수를 은 삼십에 팔았던 가롯 유다나 그를 못 박은 빌라도에게도 정당성은 주장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 가정과 교회와 사회 안에서 다투는 이들의 거의 모두가 상대적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논리를 전개하는 데 문제가 있다. 서로가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중상모략 또는 물리적 힘을 가하거나 비난을 하는 것은 풍랑 만난 배를 구해내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침몰에 박차를 가하는 것 뿐이다. 이같은 비리를 비리인 줄 알면서도 진리를 진리로 말하고 가르치려는 이들이 많지 않은 것도 더 큰 걱정거리인 것 같다. 언론인, 교육하는 이들 그리고 사회의 양심이 되어야 할 지성인, 심지어는 종교인들 까지도 비난하는 이들을 비평하지 못하는 병어리 개처럼 허울좋은 간판 뒤에 숨어 있는 이들의 말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겠으나 시대는 그런 이



들의 뜨거운 충고와 사랑의 지도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예수께서 남을 비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입을 봉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성 작용을 금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비난하여 남을 망하게 하는 파괴적 행위를 금하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지성인들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그 어느 때 보다도 크게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기독교 지성인들이 사회와 민족앞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비판 작업이 지성의 특징이라면 신앙적 지성은 그보다 차원이 더 높은 곳에 있다. 신앙적 지성은 상대적인 인간의 가치 개념에 발판을 삼는 것이 아니고 절대자와 그의 말씀 앞에서 그로부터 받은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삶을 신앙적 지성이라고 한다. 거기에는 일반적 지성인이 갖지 못한 순교적 용기와 진리에의 분별력이 위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일반적 지성인의 생활 철학과는 전혀 질이 다른 신앙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

왕자의 자리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노예민족으로서 슬픔과 저주의 고뇌를 달게 삼켰던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나 헤롯의 비행을 폭로하다가 목을 잘

리운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지성인의 용기와 결단을 보여 주는 좋은 계기가 된다. 진리를 주장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이나 진리의 진실성을 끝까지 밝히다가 순교자가 된 바울은 기독교 지성인의 귀감이다. 기독교 지성인은 이처럼 세상을 향해 항거하고 비판의 소리로만 남아 있는 것만은 아니다. 거기에는 항상 자기 성찰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뜨거운 체험이 있다. 타인을 향하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겸손과 사랑의 눈물과 용서와 화해와 평화가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용감하게 희생할 줄 안다. 기독교 지성인이 일반적 의미에서의 지성인과 다른 것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기독교 지성인의 사고와 행동의 동기는 정당성이나 비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으며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져야 하며, 그 목표(적)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우리 교회를 통해 기독교 지성인들이 더 많이 배출되어 이 세대가 요청하는 지도적 인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김**

1988. 10. 23

주안에서 여러분의 목사 이종운



월간 **충현**

1972년 4월30일 창간 제16권 4호 통권 제147호

五대목표
 천국일꾼양성
 북한선교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성전건축

위임목사 목회서신 / 크리스찬의 지성	이종윤	2
특집 / 기도와 경건생활	김형석	6
현대교회의 구제	손봉호	11
이상적 교회교육	이영덕	20
성경에 나타난 교회모텔	이종윤	24
이상적 교회선교	이동주	27
이달의 기도	손동운	30
교회설립 35주년 기념행사	편집실	31
충현칼럼 / 홍해작전 · 여리고작전 이후	조선근	39
성도의 건강관리 / 일소오다	우기찬	40
기독교 문학산책 / 르네상스 시대	김연아	42
시편강해 / 대적할 자가 없는 만유의 대왕 메시아	김창안	44
평신도를 위한 신앙강좌 / 성경	이성근	46
독자란 / NNC 하기전도 여행을 마친후	박진희	48
딸의 사역지 마사이랜드를 다녀와서	김정화	50
살람 경로대학 입학에 붙여서	박관영	52
추천도서 / 오늘을 위한 십계명	장혜순	53
용어해설 /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양우	53
교회소식	편집실	54
선교지소식	세계선교위원회	58
교우동정	편집실	60
교회행사 · 편집후기	편집실	64
약속과 축복의 현장	편집실	66



□ 표지 사진 설명 □

충현교회는 교회설립 35주년을 맞이 하면서 전국일꾼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자의 구제라는 세 기둥을 세웠다.

이로써 교회는 약한자, 소외된자, 가난한자들에 대한 사랑의 집을 더욱 무겁게 느껴면서 온 교회는 벅찬 감사를 안게 되었다.

사랑부 (장박아) 교회학교 개교식 예배후에 이종윤 위임목사님이 사랑부 학생에게 마음의 사랑과 선물을 전하시는 모습.

이번호에는 교회설립 35주년을 맞이하면서 (8월 24일~31일까지) 개최되었던 기념강연(여리고작전)의 내용을 특집으로 발췌, 정리하여 실었다. (편집자 주)

기도와 경건생활

김 형 석
(연세대 교수)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 보든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든지 사람은 반드시 버리지 않으면 안되는 마음. 떠나지 않으면 안되는 정신적 위치가 한가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기주의 라든지 이기심에 노예가 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보든지 사회적으로 보든지 본인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또 욕망과 소유의 노예가 된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면 그 사회는 불행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을 가질 자격도 없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도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어떤 때 예수님께서서는 아주 대단히 강한 표현입니다만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것 같은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진주는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은 갈 곳으로 가야지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 같은 어리석은 진도는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돼지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욕망의 화신입니다. 내 즐거움, 내 만족

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신앙도 없고 올바른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 수가 없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최소한 사람이 내 욕망과 소유를 목적으로 산다고 하면 미안합니다 그는 장로가 되었거나, 신학자가 되었거나, 목사가 되었거나, 신부가 되었거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착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욕망과 소유의 노예가 된 사람은 인간적으로도 참다운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돈에 노예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의 노예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사람이 올바르게 산다고 하는것은 욕망과 소유의 노예가 되어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마지막 보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왔는데 처음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둘 곳도 없으니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감으로써 경제적인, 명예적인 이

면 것을 소유해 불려고 했습니다.

자기 욕망을 예수님과 더불어 연결지어 불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과오를 범합니다.

사람은 욕망과 소유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기업은 하고 장사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좋은 정치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유명해지고 싶고 훌륭해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얼마전에 내가 쓴책에 진집을 편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내 진집을 하나 내고 싶느냐 하면 그래도 사람이 이 세상에 왔다가 가면 남기는 것이 있어야 될게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업적은 있어야 될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래 진집을 시작했습니다. 다 모아 놓으면 20권이 넘습니다.

그래 그것을 놓고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독자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의 명예욕, 하나의 업적에 대한 욕망인데 이진 안되겠다. 독자를 위해서 남길수 있는 것은 남기고 없애야겠다. 그래서 출판사에 이야기를 해서 다 모으면 한 20여권 되겠지만은 많아요 12권은 넘기지 말게해 달라고, 내가 보면 아까워서 다 버릴수가 없는데 사십없이 다 버리고 한 12권을 묶어 달라고 했더니 아니 다른 분들은 진집하게 되면 없는 것도 모았다가 하는데 왜그러십니까 그래요. 글씨 나도 그 생각 처음에는 가졌었는데 하다보니까 그래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영원한 진리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지만 기독교의 진리가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새로운 진리라는 뜻입니다. 항상 새로운 진리, 영원히 새로운 진리라고 하는 뜻이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실한 사람 앞에는 악마가 유혹을 못합니다. 정말 사람이 성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누가 물기를 지기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를 따라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뜻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귀한것이지 나와 더불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 보다는 그 사람이 귀하다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부터 꼭 읽어보십시오. 인간의 계층이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제일 잘 표현 하였는데 거기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서 제일 먼저 떨어진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자인 유대인이 제일 나쁩니다. 그저 밤낮고리 가지고 싸우고 밤낮 율법 가지고 싸우고 서로 죽이고 야단하고 그렇게 삽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런것 많습니다. 바울을 잡아가지고 유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려고 야단하니까 로마 군대가 와서 붙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랬더니 저 사람이 율법을 범했다고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쏙 보고서 뭐하고 그러는가 하면 또 저희 종교 싸움 이로우나, 저 유대인들은 밤 낮 저 싸움 밖에 없다 그런단 말이요.

유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옳은 일이면 너희가 막아도 살아 날 것이고 옳지 않는일이면 너희가 아무리 옹호해도 없어질 터이니깐 두어되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주의자인 유대인이 제일 떨어지고요, 로마 사람이 그위에 있습니다.

신앙은 그 위에 올라 있어야 하는 것인데 율법주의자들은 로마 사람만 못합니다. 그 당시 로마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양심과 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양심과 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두가지로 나타나는데 이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값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기 비판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귀한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항상 배우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들 아십니까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의 신앙이 올바르게 못할 때에는 이방 사람의 지혜가 너희를 심판 할거라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때는 제자들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일에 있어서는 세상의 아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훨씬 지혜롭다고 그

랬읍니다.

옛날 평양 신학교에서 장로님들이 시험했는데 한 장로님이 기도만 하고 갔어요.

하나님 나 시험 잘치게 해달라고 그래 시험 칠려고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그래 뭐라고 그러는 고 하니 성령도 시험 앞에서는 꿈쩍 못하는구나. 그랬다고 그래요. 그건 성령이 아닙니다. 다 인간적인 노력을 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합니다.

또 성실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생동안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이들어서도 더 많이 배우고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성적인 인간입니다.

그 다음 양심적인 인간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악한지를 항상 가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값있게 살고 인생을 뜻있게 살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 이성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 생활 할 때 전체 공익성이 무엇인지 공동선이 무엇인지를 항상 찾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여의도에 모인다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 없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는것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과 뜻을 내 인생관과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에서 옳겠나.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다보니까 교회도 가게 되는 거고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실한 인간이 되어서 욕망의 노예가 되었던 인간이 양심과 이성과 사회의 공동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것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야스포스 같은이도 뭐라고 그러는고 하니 형식적인 종교나 도덕이 아니고 귀한것은 성실성이라고 그러합니다.

그러나 암만 내가 성실하다고 해도 그 양심이 나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한다고 그러하지마는 인간이 구원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아마 세상에서 제일 성실하게 사는 분이 있다고 하면 공자님이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분에게 물기를 선생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말씀 하시기를 내가 아직 삶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데 죽음 어떻게 가르쳐 주겠느냐고. 아침에 도를 깨달을 수 있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그러합니다. 그는 성실한 분입니다.

그러나 성실에는 한계가 옵니다. 이제 그것 넘어섰을 때에 기독교가 말하는 경건한 삶이 옵니다.

그 경건한 삶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절대자를 그리워 하는 마음. 나는 나를 그리워할 수 없지마는 누가 나를 구원해 줄수 있는분 내가 완전하게 할수 있는 분.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 제일 존경 받을만 하지마는 성실한 사람은 제일 번뇌하는 사람입니다.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읍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를 편히 해 주겠다고.’ 그 무거운 짐은 다른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고 하니 양심의 짐을 진 사람들, 이성의 짐을 진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은 경건한 마음의 위치로 올라와야 합니다.

그 경건한 사람과 성실한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 성실한 사람은 항상 자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기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인간을 최고로 믿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인간보다 더 높은것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생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드리게 됩니다. 저 산 속에 두개의 호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한 호수는 바람이 자꾸 불어서 물결이 파도가칩니다. 하늘에 달 빛이 있고 별 빛이 있지만은 그 호수는 파도가 치기 때문에 달도 별 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 호수는 잔잔합니다. 깊이 내려다 보면 하늘을 보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별 빛이 있고 달 빛이 보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기를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이 언제나 그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신앙을 받아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양심과 이성과 사회 공의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이제 자기 한계를 느끼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인

간을 주관하시는 분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면 그것이 경건한 자세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는 경건심이 우리에게 두가지 내용을 주게 됩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인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사명의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유교에는 기도가 없습니다. 만약에 유교도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공자님의 뜻을 잘못 받아드린 것입니다.

불교에는 기도는 없습니다. 불교에는 기도대신 가지고 있는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좌선은 있습니다. 좌선은 있지마는 기도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기도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화를 가지고 인간적으로 모든 뜻을 인간을 초월하는 분에게 우리가 같이 가지기 때문에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신앙 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생활의 체험이기 때문에 기도를 자꾸드리고 드리면 한번 드릴 때에는 신앙이 안생깁니다. 열번드리고 스무번 드리고 몇번 드린 다음에는 그의 굶은맛줄이 되어서 나도 굶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선생이 누가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굶을 수 있느냐고 그것은 기도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없지마는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드릴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내 경건한 마음이 일치가 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경건한 마음이 없이 기도를 하나의 행사로 받아드린다면 옛날 바리새인 교인들과 같이 무슨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기도를 드린다면지 나를 과시하고 싶어서 드리는 기도는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6·25 전쟁때 맥아더 장군이 서울을 탈환 했습니다. 중앙청 앞 광장에서 이제 우리나라 행정권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넘겨주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난 부산에 피난가서 그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그 메시지가 제일 마지막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지금 이승만 대통령과 모든 한국 국민들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수 있는 가장 겸손한 기도로써 내 메시지를 끝내겠다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라에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것 같이 땅에서도 이

루어지이다. 라는 주기도로 끝났습니다.

그분은 군인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기도를 아는분입니다. 그분은 주기도 이상의 기도가 없다는 것을 아는 분입니다.

옛날 일본에 퀘벨이라는 독일의 철학 교수가 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분에게 물기를 당신도 기도를 드립니까. 과거에는 내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는 내기도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나는 기도 드리지만 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 밖에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기도를 드릴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도만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것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둘째번 기도인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는 기도 하나도 사실 나는 감당할수 없습니다. 이 그분은 평생 기도는 주기도만 드렸습니다. 그 이상의 기도를 드릴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보고 의사가 이야기 하기를 이제 앞으로 5분만 당신의 시간이 있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것입니다. 그 5분 동안에 뭐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음때에 여러분이 5분을 나에게 주시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써 내 인생을 마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둘째로 경건한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것입니다. 기도와 사명입니다.

저는 저 개인의 생활에서 좀 일찍 철없이 신앙생활에 들어 왔습니다. 14살 나는 겨울에 나름대로 신앙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금 좀 신앙생활에 어렸을때 하나의 계기가 있었읍니다. 좀 개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어려서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건강이 참 나빴읍니다. 그래 우리 가족들이 할머니나 부모님들이 나 오래 살리라는 생각은 전혀 안했읍니다.

그런데 14살 나는해 정월 초하루날 꿈을 꾸셨는데 내가 이렇게 옆으로 앉아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꿈을 꾸고 말았읍니다. 그래 너무 섬섬해서 우리 어머님 보고서 내가 우리 집안에서 만아들의 만아들이니까 장손입니다. 그래 어머니보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 금년에는 아마 장손이 죽으려는가 보다. 정월 초하루날 꿈이 너무 나쁘다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말더라. 그래 나보고는 이야기 못하고요. 그래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금년에는 죽는 해로 생각을 했읍니다.

그해 겨울에 신앙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드

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4살 밖에 안되는 철없는 나이인데도 내가 기도를 드릴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는것은 내 생명 보다도 소중한 그 무엇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살기 시작하는것 그것이 내 신앙 생활이로구나. 그래서 14살난 내가 기도드릴때에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지지 말고 살게 해 주시면 내가 이제 나 위해서 살지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한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셨고 나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사는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생활에서 신앙을 가졌을때 기도와 봉사와 사명의 신앙을 말합니다.

그 신앙이 결국은 여러 과정을 밟습니다. 또 그 사명이 여러가지 과정을 밟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명은 인간을 위한 사명입니다. 어떻게 경제도 책임져야겠고 정치도 책임져야겠고 다 책임져야겠지마는 인간을 위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인간의 대한 사명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든 이웃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열매 맺을수 있기를 위해서 나를 희생 할때는 희생하고 양보할때는 양보하고 봉사할때는 봉사하는 것. 말할 한 말이 땅에서 썩어야 열매를 맺읍니다. 썩지 않고 자기를 지킬려고 하면 말과 죽고 맙니다.

그런 뜻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희생과 봉사의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서 끝마칩니다.

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누가 받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다시한번 일본에 오지 않겠느냐고. 그것은 일본에 엔도슈우사끼라고 하는 종교 작가가 있는데 그의 작품이 일본 안에서 보다 구라파에서 세계적으로 참 관심을 많이 모았읍니다.

그래 그이 때문에 일본에 한번 더 오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분이 쓴 작품이 우리말로도 한국에 번역이 되고 그랬는데 그 작품 가운데 실지로 살아 있었던 신부의 행적을 자기가 구라파에 가서 추적해 가지고 쓴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그 신부가 살아있다고 해도 85~6 세에서 90

세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그저 나보다 15~6 년쯤 20 년쯤 더 나이 많을 만한 분입니다.

신부는 국적이 폴란드입니다. 일본 어디 남쪽 지방에 와서 고아원을 설립하고서 운영기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당신의 국적이 폴란드고 폴란드는 아주 세계적인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래 운영기금을 모집하러 갔읍니다. 가서 그일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히틀러가 2 차대전을 갑자기 일으키면서 우선 폴란드를 점령했읍니다.

점령하고는 군인이거나 군인 아니거나 강제노동에 끌어서 쓸수있는 사람들은 전부 끌어서 포로 수용소에 넣고 무기한으로 강제 노동에 끌려 다녔읍니다.

그러니까 애국적인 젊은이들이 적국인 독일을 위해서 일할 수 없어 자꾸 탈출을 합니다.

그때 독일 장군들이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잔인한 방법을 냈읍니다.

막사에다 배정을 한 막사 사람들끼리 자기네끼리 어떻게 하시고 하니 감시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탈출하다 성공하면 감시 못했다고 해서 대신 한 사람을 잡아 죽입니다.

두 사람이 성공하면 두 사람을 죽입니다. 실패해서 잡히게 되면 다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앞에 끌어 내다가 죽음으로 공개적으로 보내 버립니다.

살벌스러운데 불행하게도 그 신부가 잡혀 들어갔읍니다.

어떤날 새벽에 좀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눈을 뜨고 보니까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탈출했구나 화장실에 갔으면 벌써 올 시간이 되었는데 오지 않습니다. 탈출 성공 했으면 자기들 가운데 대신 한 사람이 죽어야 하고 실패 했으면 자기네를 보는 가운데 죽음으로 가야 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일하러 나가고 강제노동 끌려 나가기 위해 운동장에 도열해 섰읍니다.

독일 장교가 나타나더니 어젯밤에 아무 막사에서 한놈이 탈출 하다가 잡혔다고. 너희들 보는 가운데 죽음으로 갈 것이라고 끌어 냈읍니다.

이 신부가 보니까 자기 옆사람인데 얼굴이 창백해지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다 죽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표시와 잘있으라는 표시를 위해서 자기 그 막사 사람들을 한번 죽 돌아봅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입니다.

신부의 눈하고 그 사람의 눈하고 마주쳤읍니다. 이

신부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두
벽두벽 걸어 나갔습니다. 가서 독일장교 보고 이야
기하기를 이 사람은 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
아는데 집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세 어린애가 있어
나는 집으로 가야 한다고 항상 이야기 하고 있었다고.

이제 이 사람이 죽게 되면 혼자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아내와 그 어린애들 네 사람이 정신적으로 죽는다고
당신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어린애가 있을텐데 생각
해 보라고 말어요.

또 그 사람이 성공했다면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 갈
것이고 대신 누가 한 사람 죽었겠는데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이 사람을 돌려 보내라고 말어요.

그래 돌려 보냈습니다. 네 생명은 아깝지 않느냐고
나는 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네사람이라고 신부인
내가 죽었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이 탈출 안할 수 있
으니까 어서 돌려 보내고 내가 남겠다고 그래 다 강제
로 끌려가고 신부는 이제 죽음으로 끌려 갑니다.

저녁때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와서 막사에 들어왔
는데 잠을 못 잡니다. 신부자리는 비어있고 대신 살아
남은 사람은 자꾸 흐느끼 울고 밤은 깊어집니다.

나이 많은 한 사람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그래도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 남기로 하
자고 아직도 세상이 착하고 아름다운데 왜 희망을 버
리겠느냐고 말어요. 그러자고 말어요. 그리고 희망을
안고 잠들었다고 합니다.

이 작가는 크리스찬의 마지막 삶의 의미가 뭔가를
거기서 찾았습니다.

나를 희생 하더라도 나를 부정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의 뜻이 많은 사람 마음속에 심어져야 합
니다.

그 마음에 심어져서 우리가 인생을 귀하게 살고 경
건한 생활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할
사명에 참여 할 수 있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
다는 것은 그런 생활을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따라가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고 그 선택과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교회 생활을 많이 하셨고 또 교회
에서 많은 것을 배워 왔습니다. 이는 이러한 아주 핵심
적인 그리스도와 더불어 머물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같
이 살려고 하는 인생의 귀중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현대교회의 구제

손 봉 호
(서울대 교수)

오늘 저녁엔 '현대교회와 구제'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지금 통일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아마 천주교회는 특별히 북한선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줄 믿읍니다.

통일이 되려면 여러가지 극복해야 될 것이 한두 가
지 아닙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 경제적인

그 정책 혹은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위 자유 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를 택하고 있고 북한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경제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통일이 되며
는 우리는 물론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적지 아니한 문제입니다.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성경이 가르친 것이다'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 사회주의가 성경이 가르친 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니, 그런 말이 나오기 이전에, 그런 것이 나누어지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이 성경이 자본주의에 입각해서 쓰여지거나 혹은 공산주의에 입각해서 씌어진 책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후에 만들어 진 것이고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전체를 읽어 볼 때 성경은 어떤 것을 가르치는가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 보는 것이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에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자본주의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자본주의는 성경적이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또 그렇게 말할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 가게 하셨을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으로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열한 지파에게 땅을 전부 나누어서 기업으로 주었고 그 땅은 사유재산이었습니다. 즉 그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빚이 너무 많아져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더라도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저당 잡혔더라도 회년때는(50년 되는데)는 그것을 다시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유재산이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본주의가 사유재산을 중요시 한다면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는 자본주의적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고 베드로에게 가져 왔다고 하면서 일부를 숨겨 놓았다가 나중에 베드로에게 그것이 알려져서 그 사람들이 지주를 받아서 죽었습니다만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5 장 4 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봐서 그 땅은 아나니아와 삽비

라의 사유재산이다. 너희들의 사유재산이니까 너희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냐 그런일에 구태여 속여야 하느냐! 그것이 베드로의 꾸지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합법적으로 자기 자신의 것이라 하는것을 성경이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유재산을 충분히 인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절대로 자본주의를 지지하느냐 하면 성경에는 자본주의의에 어긋난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자본주의 신학자들이 인용하는 바 오순절 이후에 성도들이 자기 소유들을 다 팔아가고 있는 사도들 발앞에 갖다 놓았지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 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원시공산주의 혹은 오순절 공산주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가지고 사도들에게 갖다주고 사도들이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으니까 그것은 소유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할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24 절-25절을 보면 재미있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추수할때가 다 된 그런 곡식밭이 있는데 배가 너무 고프면 거기 가서 얼마든지 그걸 뜯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가지고 먹고 또 먹고 배가 찰 때까지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포도가 잘 익어있는데 지금 배가 굉장히 고프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얼마든지 먹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남의 곡식을 그대로 먹고 남의 포도를 그대로 따먹으면 그저 도둑질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그랬어요. 곡식을 손을 비벼서 먹기는 먹는데 낫으로 그것을 베 가지고 집에 가져가면 안된다 그랬습니다 또 포도도 손으로 얼마든지 먹을수 있으나 자루를 가지고 거기에 담아 가지고 가면 안된다 그랬습니다.

또 신명기 24장 19절 -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를 할 때 그 이삭을 일일이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도 어릴때 시골에서 추수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사실은 일꾼들이 추수를 한 뒤에 우리는 뒤에 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그 떨어진 이삭을 전부 주었습니다.

포도나무에 과일이 많이 열렸는데 그걸 딸 때 제일

꼭대기의 가지, 먼데 그런 가지는 따지 말고 그리고 또 혹시 눈에 안보여 가지고 못따게 있으면 다시 재차가서 그걸 따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두어야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또 따 먹을수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우리 사유재산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유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죽으면 안된다. 내 가진 재산은 물론 나의 재산은 나의 재산이지만은 그러나 나의 그 소유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배고파서는 안된다.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굶어 죽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 요즘 현대표현으로 기본 수요라고 그러합니다. 사람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기본수요라 하는데 기본수요라는 것은 사회마다 다 다릅니다. 만든 대개 우리가 모두 다 동의하는 것은 누구든지 뭐든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습니다.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인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은 그건 그 사람이 자격이 있던 없던, 그 사람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없던, 일하던,안던 먹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감옥에 있는 사람도 먹이고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일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회에 큰 해독을 끼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우리가 죽어라고 일해 가지고 그걸 감옥에 있는 사람을 먹인다 말입니다.그걸 보면 역시 우리 사회에서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벌써 구약에서 그걸 가르칩니다. 인간은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 소유가 중요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굶어 죽을 때는 사유재산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굶어죽도록 해서는 안된다. 일단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사유재산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물론, 그 재산이 상당히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권리이긴 권리입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추위와 더위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생물학적으로 생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명기 15장에 보면 면제년을 두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거나 빚을 많이져서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더라도 7년이 되면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빚을 많이져도 모든 빚진 것이 7년후에는 면제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

즘 사유재산권에 비취 봤을때 말이 안되는 거지요. 7년이 되면 갚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봐도 사유재산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또 빚을 너무 많이져 가지고 남의 노예가 돼도 7년 후에는 무조건 석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을 봐서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는 하나 그것을 절대사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재물관, 경제관은 무엇입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청지기주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경제관은 청지기주의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그 주인이 어디로 나갈때 자기 청지기에게 집안 모든 것을 다 맡기지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그 하인들을 두들겨 패고 자기 혼자먹고, 마시고, 나중에 주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책망을 들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맘대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하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우리에게 맡겨 가지고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에서 제일 큰 약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내 집이다, 내 자동차다, 내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진정으로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땅위에서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다섯달란트는 또 다섯달란트를 만들고, 그건 자꾸 부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5만원 받은 사람은 10만원 만들어라 물론 그럴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으면 그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앞에 영광이 되도록 즉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적나라의 창고에 잔뜩 갖다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재산을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관리인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경제관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기독교회 경제관은 청지기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제로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것은 내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잘못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봐서도 잘못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돈 내 쓰는데 무슨 상관이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따져봅시다.

어떤 사람이 저 서울에서 좀 남쪽으로 가는데 도시에다가 공장을 세웠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시다. 그것은 자기돈 들어 자지고 자기가 공장 세워가지고 열심히 일해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 돈 자기 돈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잘 따져보면 그사람 그것 자기돈 아닙니다. 왜냐니까 그 사람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세우는데 그 공장 만들기 위해서 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된다 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국민전체가 세금내서 만든 것입니다. 또 그 공장을 돌리려면 거기에 전기가 들어와야 되지 않았습니까? 전기를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국민 전체가 세금 내어, 발전소 만들어 가지고 전선 만들어지고 한 것이이지 자기가 다 한것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이 그 공장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게 엄격하게 따지면 결국은 자기가 한것 아닙니다. 국민전체가 거기 다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 만드는데 세금 많이 내고도 일생내내 고속도로 한번도 안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금은 조금 냈는데 고속도로를 매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을 번다하면 그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버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전체가 거기에 공헌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벌때 이게 내 돈이라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모든 것이 됩니다. 아무리 오늘날 사람의 기술이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안주시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크고 부자라 하더라도 금년에 흉년이 졌습니다. 지금 미국에 비가 안와 가지고 미국에 곡식이 줄어든다는 것은 세계경제 판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재주가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비를 안주시면 우린 다 굶어 죽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청지기이다 이 사상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로서 빈부의 격차가 상당히 심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는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이런 나라보다는 우리나라가 빈부격차가 적습니다. 그러나 미국, 영국, 일본, 대만, 홍콩보다는 우리나라가 빈부격차가 훨씬 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수준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즉, 부자는 너무 잘살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못살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가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만큼 경제수준에 있는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빈부격차가 매우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절대빈곤층에 속해있는 사람들의 수가 아직까지도 약 200만명입니다. 도시인구 40%가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집이 없는 사람의 상당한 사람은 한방에 7사람씩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방에 7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변소를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7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7, 21사람, 몇이 변소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는 7사람씩 자는 방이 몇개가 모여서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60%는 땅을 한 평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땅이라고는 한평도 못 가진 사람이 우리 인구의 60%입니다.

농민들의 30%는 지금 소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20%가 국민 전체부의 43.7%를 차지하고 있다고 신문에 났으며 5%의 서울 시민이 서울시 땅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통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 사회는 매우 불안한 사회가 됩니다.

공산주의의 위협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공산주의의 위협이 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 리버가 주장하기를 배가 고프면 혁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의 혁명이 일어나지 아니하려면 공산주의가 일어나서 사회가 뒤집혀도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우리를 지배하던지 김일성이가 우리를 지배하던지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으면, 이관사관인데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한번 해보자고 덤뵙니다. 김일성이가 오면 내가 손해볼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야 사회가 안정이 됩니다. 그래야 공산주의의 위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우리 제도나 김일성이
가 오나, 마찬가지로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공산주의
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노동쟁의를 해서 임금이
많이 올라 간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참 다
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이 올라 가면 외국하고 경쟁에서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임금을 많이 받으니까 공산주의
가 되면 안된다. 공산주의가 되면 이 많은 임금 다 날
아가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임금이 적어 가지고 북한
이 다스러도 역시 이 정도는 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
은 그건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임금도 올
려야 되고 가난한 사람의 수도 줄여져야 되는 것입니
다.

그리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장애인들입니다.

정부통계로는 약 백만의 장애자가있는데 이것은 어
처구니 없는 통계입니다. 장애인들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약 4 백만의 장애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4백만의 장애자 가운데서 정부기관
혹은 공공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1%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계 전체로 보면 아주 수치스
러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올림픽이 끝난 뒤에 장애인 올림픽을
합니다만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전국 장
애자의 1%도 공공시설에 수용하지 못한 나라. 지금
지하철에 가 보십시오. 장애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
가 어디있는가 찾아 보십시오.

지하철에 가보면 제일 우스운것이 장애자가 전화할
수 있도록 전화기를 낮추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휠
체어를 하나 그려 놓았습니다. 장애자가 전화하면 된
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모든 출입구는 계단으로 되어
있으니 휠체어 타고 어떻게 계단을 내려갑니까? 서울
 시내에 장애자가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을
지로 입구역과 잠실 종합운동장역 뿐입니다.

아무데도 장애자가 지하철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그
리고 공공건물에 장애자가 휠체어 타고 들어갈 수 있
는 건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종윤 목사님께 말씀
들어보니까 충현교회는 다행히도 그걸 다 설치하셨다
니 여간 감사하지 않습니다.

교회 거의 대부분이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요. 전부 계단이고 문턱인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을

니까? 이래놓고 장애인 올림픽을 한다는 것은 문명인
으로서, 문화인으로서 우리가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경제수준이 우리 정도이고 교육수준이 높다
고 자부하는 나라에서 장애자를 이렇게 천대하고 무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계 장애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건물
을 보고 지하철을 보았을때 뭐라고 하겠는지 한번 사
상해 보십시오.

충현교회에서도 정신박약아 유치원 유아원을 개설하
였습니다만 저희 서울 영동교회에서도 약3년전부터 정
신박약아를 위한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주일학
교는 학생이 24명인데 선생님은 26명입니다. 학생 하
나에 선생님 하나씩 따라 붙지 아니하면 안됩니다. 이
아이들을 아침에 일일이 선생님이 가서 데리고 와야
합니다. 부모님이 아이들 내놓기를 얼마나 부끄러워
하는지 심지어는 없다고 까지 합니다. 처음에 가면 내
놓지 않다가 가서 설득을 하고 애를 써야 겨우 아이
를 보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택시를 태워 가지고
교회에 오고 또 저녁에는 전부 차에 태워가지고 집집
마다 데려다 줘야 합니다. 부모들 초차도 자기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천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
애자들에 대한 우리 국민의 사고방식, 태도는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관심을 별
로 두지 않은 것은 큰 잘못입니다.

장애자들이 장애인되는 것을 자기들이 원해서 장
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장애자가 되기를 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자가 된다 말
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비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자의 90% 이상이 후천적입니다. 태어
날 때부터 장애자가 된 사람은 약 10%정도이고 지
금도 계속해서 장애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자동차 사고나서, 운동장에서 체조하다가, 천구하고 씨
름하다가 계속해서 장애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
서 실명하고 지체가 부자유하게 되고 혹은 관절염이
걸려서 절개되고 장애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장애자가 안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내가 장애자가 될 수 있고 우리 자녀가
언젠가 장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멀리 내다 보지 못하는 잘못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하고 또 불쌍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돈 몇 푼 던져 주는 위선적인 자선은 그만두고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돈 몇푼 던져주고 도와 주는 것은 아주 위선적이며 피상적이며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영원히 거지로 만드는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사유 재산제도를 완전히 없애 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국가 소유로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대로 나누어 주는 제도를 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가끔 정부에서 혹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에는 공산주의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공산주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개 대학생들의 약 2% 정도는 공산주의자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나라에 공산당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상황에 와있다고 피력합니다.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의 이름으로 공산주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공산주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대중을 위하여, 민중을 위해서 공산주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는 길은 제가 보기에는 공산당을 허락함으로써 국민의 이름으로 공산주의 운동을 못하게 하고 공산주의 이름으로 공산주의 운동은 하도록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기주의를 고려할 때 한국이 만약에 공산주의 제도를 택하거나 사회주의 제도를 택하면 우리는 한꺼번에 망합니다.

서양처럼 노동에 대한 무슨 특별한 관념이나 전통이 있는 나라에서는 모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유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공산주의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동쪽 아시아에 보면 공산주의를 택하지 아니하는 유교국가들 일본, 한국, 대만, 홍콩은 경제적으로 아주 번성하고 공산주의를 택한 나라는 모두 가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자본주의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그 자체가 옳고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과 국민성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자본주의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별 덕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본주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 불쌍한 사람을 없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 교회가 구제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제도적으로 하면 게으른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국가가 이것을 맡아서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만은 엄청난 낭비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우리 사회에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쓸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에게 오해가 하나 있는데 구제는 교회가 그렇게 강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구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쓸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말로 말해서 우리가 선교를 다하고, 전도를 다하고, 다른 것을 다 한 뒤에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구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구제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착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나서 한 일이 전도와 구제 두가지 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서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사도들이 전도도 하랴, 구제도 하랴,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일을 분담해서 전도는 사도들이 하고 구제는 집사들이 하자. 그래서 집사들이 생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집사는 구제하기 위해서 생겼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대로 하자면 구제하지 않는 집사는 성경적인 집사가 아닙니다.

성경에 집사는 구제하라고 새웠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인정하는 작은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향존직으로서 하나는 장로요, 하나는 집사로서 안수집사를 뜻합니다. 그러나 장로 가운데는 두 가지 장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목사와 치리하는 장로로서의 장로입니다.

장로직은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역할을 해야되고 교

회를 다스리는 임무를 감당해야 되고 집사는 구제하기 위해서 생겼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이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일조를 교회에 냅니다만 구역에서 레위지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깃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열한 집과 십일조를 내가지고 그것으로 레위지를 먹이고 그 다음에 성전에 쓸 것을 사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4장 28절을 보면 '매 삼년만에 그해 소산의 십분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낸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성경에도 교회의 하는 일 가운데 구제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선교사, 전도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1, 2, 3 차 전도여행이 모두 선교를 위해서 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난한자를 생각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저 전도만 하고 구제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바울 사도가 1 차 전도여행, 2 차 전도여행, 3 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갈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체포되어 다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어떤 성도들은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와 같은 선지자는 당신이 이밖에 가면 틀림없이 체포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고만 생각하지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갔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 봅시다.

로마서 15장 24절에 '이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의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 줄을 바라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

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밋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실은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서 한 연보를 가져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구제를 무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느니 가지 말고 더 전도하면 될것 아닙니까? 마게도냐에서 바로 로마에 가도 될것 아닙니까? 오히려 육지가 가까이 가서 훨씬 더 편합니다. 다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로마에 무엇하러 가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목숨의 위험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간 것은 연보를 가져 가기 위해서 즉, 구제의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이외에 그 시대에 여러가지 기록된 디다케같은 문서에서도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구제에 관심을 많이 썼다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서신에 나타난 연보는 모두 구제연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연보는 전부 구제만 위해서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예배당이 없었고 따라서 교회만 전임하는 목사님도 안계셨으니까 다른 연보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연보를 했음니다만은 오늘날은 상황이 좀 다르니까 우리가 연보를 다른 곳에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 언급된 연보는 모두 구제연보라는 사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연보의 상당한 부분은 구제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9 장 13절에 보면 고린도교회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 연보를 했습니다. 그들이 쓰고 남은 것을 연보한 것이 아니고 쓰고 남은 것을 구제에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지극히 가난했지만 자기들보다 더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연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저희는 넉넉하고 유여하고 너희는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준케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제는 아주 잘 사는 사람들만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가난하지만 우리보다 더 못사는 사람들에게 조금 나누어 줘서 어느 정도 좀 올라오게 만들어야 되

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쏟습니까?
그 시대에 가장 불쌍한 사람,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관심을 쏟았다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장애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 병이 나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의 고아와 과부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관심을 쓰셨다면 그의 성도된 우리도 역시 관심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수교회는 그동안 전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였고 지금은 또 선교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첫째 사명이 전도입니다. 이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도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참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균형을 맞추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구제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썼고 바울 사도가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구제 일을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칼 막스의 전기를 읽어 보니까 칼 막스가 6살 때 세례를 받고 루터 교회에서 자랐는데 고등학교에 다닐 때 신앙이 꽤 좋았습니다. 고등학교때 막스가 쓴 답안지를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 정도로 상당히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찌다가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원수가 되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 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그때의 독일교회가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그 때 독일교회가 프러시아왕국에 아부해서 모든 잘못은 덮어 주고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회가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꽤 신앙이 괜찮았던 한 청

년으로 하여금 두고두고 우리 교회의 원수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상당히 사회정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하나씩 둘씩 복음주의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에 속해 있는 학생들은 대학에서 굉장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아주 비참할 정도로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자유주의 학생들은 사회정의, 민주화를 부르짖어 상당히 성취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불쌍한 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쓰지 않으면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 가버립니다.

오늘날 우리 대학생들만큼 사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드뭅니다.

그들이 잘못되었음이지만 하는 방법은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을 쓰는 그 사실은 참 기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이 모두 이기주의자들이 되어 자기 앞만 달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에 대하여 아무 관심도 쓰지 않는다면 얼마나 알밸겠습니까? 그래도 젊으니까 이상이 있어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물론 복음주의 학생들 가운데 또 청년들 가운데 참 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밀알선교단에서 개최한 캠프장에 장애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자들을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돌보는지 장애자 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자기는 너무너무 감격했다고 했습니다.

장애자 어린아이가 밤새도록 우는데 어떤 교회 청년 하나가 그 아이를 업고 밤새도록 잠 한숨 자지 않고, 그 아이를 달래고, 그 이튿날 아침에 밥을 먹이는데 밥을 물에 말아가지고 숟가락을 한술은 장애자 입에 또 한술은 자기입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사람을 몰라주고 이런 사람에게 관심을 쓰지 않는다면 많은 젊은이들이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충현교회는 훌륭한 교회당을 세웠으니까 이제는 일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예배당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좋은 수단을 갖추었으니까 갖춘 다음에는 이제는 전력을 투구하여 선교하고 구제하여 우리 한국교회에 모

범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멋진 교회가 구제를 안하면 욕먹습니다. 물론 선교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 교회의 예산의 절반이 선교와 구제에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 영동교회도 재작년에는 63%를 선교와 구제에 썼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53%로 떨어졌습니다. 이것 적어도 60%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야단이 났습니다.

충현교회는 큰 교회이니까 80%, 큰 교회는 남은 20%도 우리교회 40%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의 쓸 것을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것은 써야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돈을 쓸 때 이것이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돈 한푼 한푼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또 영광이 되면 어느만큼 되느냐, 똑 같은 돈으로 영광을 돌리는 데 많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예로 듭니다만 몇년 전에 어떤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이 돈을 1억을 내가지고 장학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나라의 유명한 재벌이 돈을 1억을 내가지고 자기 집을 위해서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그것이 같은 1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같은 1억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신학생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내놓은 1억과 집을 위해서 아파트를 사준 1억을 같은 1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돈 때문에 속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같은 액수가 아닙니다. 하나는 수백억의 가치가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 수백억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보도 그렇게 써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래서 다른 것은 좀 겸소하게 하고 선교와 구제에 대해서는 아주 힘을 써서 충현교회가 예배당 다 짓고 난 뒤에는 우리 할 것 다했다 하여 축 늘어지면 이렇게 큰일납니다.

그렇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학위를 받으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학위를 받고 나니까 세상에 그렇게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는가 이제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겨우 예배당 지어 놓았다. 그 다음에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해서

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국의 좋은 일군을 충현교회에서 많이 키우기 위해서 교육에도 힘을 쓰고, 제가 이 종을 목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했읍니다만 이 목사님이 아주 좋은 비전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비전에 여러분께서 협력을 하셔서 아주 멋진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나라에서 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 모든 국민이 다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의료보험을 가지고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우리 회사가 점점 더 세금을 많이 받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시책이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소위 사회보장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구제할 것이 없어질 것이니 외국에 구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6.25 전후를 통해서 얼마나 외국의 원조를 많이 받았습니까? 저도 미국 성도들이 보낸 바지를 다시 꿰매 가지고 입고 다닌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구호물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만큼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은 나라가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축복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관광하는데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정부는 지금 달러가 많아가지고 어쩔줄을 몰라서 관광 많이 가라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돈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 만 명씩 굶어 죽고 있는 것을 압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하루에 만 명씩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굶어 죽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생각하는 소극적인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그만큼 많은 원조를 받아 가지고 살았다면 지금 다른 나라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 가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약 6백만 명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약 4천 2백만인데 그 중에 아프리카의 인구 40%가 영양 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세계 인구중에 5천만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억의 인구는 언제든지 먹을 것을 갖다주면 즉시 삼킬 수 있는 정도의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또 올림픽도 개최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부를 우리끼리만 즐기라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선교하고 구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벌어들인 아주 귀한 돈을 가장 귀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이라 그렇게 믿읍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특별히 장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며 우리의 관심입니다. 사실은 관심을 쓴다는 것이 돈주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저 돈 한푼 던져 주고 잊어버리면 오히려 편하지만 그 사람들을 찾아 가서 위로하고 그 사람들의 말동무가 되어 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돈은 이제 정부가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직접 찾아 가서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구제하지 않은 것과 똑같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총현교회는 참 막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일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써 주시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많이 하실 줄 믿읍니다.

우리 이 목사님을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셔서 훌륭한 예배당으로 이룬 것도 좋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은 총현교회 하면 '아! 구세하는 교회' 그렇게 되면 아마 하나님께서 훨씬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축복을 여러분께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ㄴ

이상적 교회교육

이 영 덕
(서울대 교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을 믿는 일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실 거라는 약속을 이 본문 말씀에서 읽으면서 어찌면 나는 왜 이꼴이냐고 한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낙심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교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진심으로 힘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가 지으신 대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도록 도와 주시고 우리의 온전함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상적인 교회

교육에 대하여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상적인 교회 교육의 목표는 두말할 것없이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모든 교인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도록 이끌어 주는 사명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배워갑니다. 이 배움이 없는 인간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갓난 아기는 그가 배고플 때에 엄마의 젖을 얻어 먹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배워 나갑니다.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달라고 울음으로 엄마를 찾읍니다. 처음에는 젖이 입에 닿을 때까지 읊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경험이 쌓이면 젖을 주기 위해 준비하는 발자욱 소리와 부엌에서 그릇 만지는 소리가 들리면 울음을 그칩니다. 젖을 달

라고 한 자신의 의사가 엄마에게 전달된 것을 알기 때
문입니다. 그들이 자라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걷는
법을 배우고, 말하기를 배워 갑니다. 어린이들이 학교
에 가기 전에 배우는 것이 학교에 다니면서 배우는 것
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법을 배우고 친구들과 사
이 좋게 지내는 법을 배우고 질서와 법을 지키는 것을
배워 나갑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부모님에게 좀 반항
도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
립하는 것을 배워 나갑니다. 장차 경제적으로도 부모로
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직업적인 자질도 배워 나가야 됩
니다.

이제 청년이 되어 의식이 발달하니까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을 배워 나갑
니다.

이제 어른이 되면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가르치고 키
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직업을 갖고 자기가 맡은 직
무에 책임을 다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삶속에 나타
나는 많은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극복
하고 해결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지나서 노년이 되어도 배움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교회에서 노년학교를
하는 데 가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더 깊이 배우고
자손들을 돌보기와 나아가서는 죽을 준비를 가장 보람
있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듯 죽기까지 더 알아야 하고 또 알기를
원하고 무엇이든지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
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마음이 좀더 편
안해지고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많은 평강과 삶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더 깊은 삶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계속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에덴동산에 데려다가 온갖 아름
다운 세계를 보여 주시며 이것이 다 너의 것이니 너희
가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다스리라는 명령과 함께 사람
들 마음 속에 배우고자 하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다스리려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다스리려
고 해도 그 가족의 상태를 잘 알지 않으면 잘 다스릴 수
가 없습니다. 땅을 다스리면서 농사를 지으려면 기후
관계와 함께 농업에 관계되는 많은 지식과 기술을 배
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애기가 자랄 때 걸음마
를 배우기 전에 벌벌 치는 때가 있습니다. 벌써 자기
몸을 자기가 운반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엄마들은 바

빠집니다. 감추어진 어두운 구석에 무엇이 있는지 보
고 싶고 높으네 무엇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탐색을 하
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잘 다스리려면 이 세계를 알
아야 한다는 마음까지 주셔서 그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
것을 일반적인 용어로는 호기심이라고 합니다. 아인슈
타인은 이 호기심 앞에 기록한 '성'자를 붙여 가지고
성스러운 호기심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알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읍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사람이 배우기를 원하는 일반적인 욕구와 함께 이것
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채워주고
도와 주는 사람들의 도움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교육이든 이 세상의 교육이든 어디에서나 통하
는 같은 뜻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좋은 교육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지에 관
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상적인 교
회 교육에 대해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태어나서 유치원이나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가
정에서 사는 동안이 있습니다. 선생은 없다고들 생각
하지만 집에 선생님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선생님이 어머
니입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하는지 모르는 동안에
교육이 됩니다. 학교에 들어 갑니다. 제도가 마련 되어
서 종치기 전까지 학교 가야 되고 또 종치면 특별한 과
목을 공부해야 됩니다. 또 종치면 다른 과목으로 옮겨
가야 됩니다.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일
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배웁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배웁니다.

모든 배움의 과정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 보이는,
밖으로 드러나 있는 교육에 의해서 사람들이 배워 나가
는 과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감추어져 있어 배우는
사람도 모르고 그 배움에 영향을 주는 선생 노릇을 하
는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좀 더 설명 드리면 첫번째 드러나 있는 교육은 무엇
이 중요한 것인지 점검하고 선생님을 따라 읽고, 쓰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시험을 치르고 성적표를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공부는 노출된 부분의 교육입니다. 그런가
하면 문제는 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배움, 감춰진
부분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
춰진 교육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자기가 그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때

좋은 철학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을 얼마나 좋아 했는지 말투까지 그때 거의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중요시 하는 사람을 흉내 낸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닮게 됩니다. 그게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 선생이 자기의 제자와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한 것은 열심히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학생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 아들을 사랑한 것 뿐입니다. 사랑받는 만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자꾸 닮아가는 과정을 거쳐간 것입니다. 이걸 닮아간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노출된 교육에서는 지식 기술을 주로 배우지만 숨은 교육에서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가치관, 물질을 사랑하고 돈의 노예가 되느냐 물질과 돈을 다 초월하고 이웃에 대한 넘치는 사랑으로 구제하고 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느냐 하는 것은 전부 감춰진 상황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일,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노출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물론 되지만 감춰진 교육을 통해서 더 중요하게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심겨지게 됩니다. 두번째는 닮아 가는 것 까지도 그 안에서 다 설명될 수 있지만 실제 부모나 어른이나 친구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면 웃고 말을 걸고 대답하고 또 의논을 하고 그 의논에 응해주고 어떤 행동을 하면 기기에 대해서 평가해 주는 등 부모와 아이의 상호작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는 끊임없이 주고 받는 교호작용이 있는데 그 교호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 어떤 일은 좋은 것이고 어떤 일은 좋지 않은 것이고, 네가 남자면 이렇게 행동해야지 네가 여자면 그렇게 행동해야지 하고 알려 줍니다.

미국에는 인종 차별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인종차별을 모르지만 애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것을 압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 속에서, 흑인들을 대하는 자세를 보고, 인종차별의 물이 강하게 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데는 언제나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하지만 몇번 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된다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런 지혜까지 포함해서 알게 모르게 배우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다 섞어 가지고 감추인 교육에 의해서 배우는 부분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이 교육이 잘되기 위해

서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 온전해 지고자 하는 마음, 알고자 하고 온전해 지고자 하는 마음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말씀에 우리가 거하므로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말씀이 우리들의 인격 속에 자리잡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그 자유를 갖기를 원치 않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의 온전함에 이르는 일에 있어서 간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솟아 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늘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목적이 세워졌을 때에는 성취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배울때 뭘 배웠는지 알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내가 지금 성경을 정통적으로 정확하게 깊이 알고 있다고 하는 느낌이 자기에게 자꾸 오도록 선생님도 열심히 가르치지만 본인도 열심히 해서 만족의 마음이 늘 마음 속에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교육에서는 선생, 배우는 사람, 그 다음엔 내용, 이 세가지 요소가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 한다는 말은 배우는 사람과 선생이 일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배우는 사람과 선생이 일치한다는 것은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선생의 마음을 알고 선생이 학생의 마음을 알고 하나가 되어 깊이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정 이입적인 이해라고 합니다. 상대의 마음 상태를 그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배고프면 얼마나 배고픈지,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누구를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지, 무엇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지 그이가 느낀대로 자기도 느낄 정도로 사람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수의 과정에서 실수의 예언까지 했습니다. 가롯유다가 자기를 팔아 먹을 것까지 다 알 정도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알았습니다. 그래야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배우는 사람과 내용이 일치 되어야 합니다. 유치부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이나 겨우 이해할 정도로 힘든 추상적인 얘기로 가르치면 그 내용이 어린이

와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과 내용의 일치가 남았습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는 상태가 되어야 교육은 잘된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계속성, 일관성,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글을 배우면 머리에 들어 가서 곧 잊어 버립니다. 또 배워야 되고 또 연습해야 되고 또 복습해야 됩니다. 이것이 계속성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것하고 엄마가 하는것하고 일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 장로님이 하는 행동, 집사님이 하는 행동 전부 다 일치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 심화의 원리가 있습니다.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완전히 머리 속에서 외울뿐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인격화라고 하는데 인격화하려면 배운 내용을 실천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배워 나가고 일관성 있게 배워야 되고 배운 것이 내 인격 속에 깊이 들어오도록 심화하기 위해서 배운 대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게 어디 더 있는냐는 말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서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학교 선생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좋은 크리스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애써야 됩니다. 실제 구원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교회교육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생노릇을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이 교회교육은 안되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교육, 숨겨진 교육에서는 교회가 성령충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번째 원칙에 계속성과 일관성과 심화의 원리를 말

씀 드렸습니다. 계속성에 관한걸 어떻게 썼는지 아십니까? 신명기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노니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가르치는데 한번 가르치고 말면 안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항상 강론할 것이며' 이것이 계속성이요 항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가지는 참새적인 교육의 조건에 대해서 결론 삼아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이상적인 교회 교육의 숨은 교육과정의 조건 원리 열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번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입니다.

둘째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세번째는 기도하는 교회라야 합니다.

네번째 경건한 교회라야 합니다.

다섯번째는 기사와 표적이 따르는 교회입니다.

여섯번째는 나누어 가지는 교회입니다.

일곱번째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여덟번째 즐거운 교회입니다.

기쁨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했습니다.

아홉번째 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온 백성에게 청송을 받으니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참새적 교육을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끼리만 좋다고 믿고 즐겁게 지나가는게 아니라 매 주일 새 교인들, 믿지 않던 교회 한번도 안 나가던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 받아 어둠에 있던 그의 삶이 이제 귀한 빛 속에 들어가는 생활과 인격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참 기사와 표적입니다. 충현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모델

이 종 윤

(위 임 목 사)

충현교회가 헌당을 한 다음에 나아가야 할 지표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고 작전을 개시하고 교육, 선교, 구제의 이상적인 모델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는 중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교회가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성경 신학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기다립니다.

1. 교회의 의미

성경은 교회를 삼위 일체적인 차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 교회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세째,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으로 교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상의 세가지 차원의 교회론을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1) 교회는 하나님의 계약 백성입니다.

교회는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약 백성을 말합니다(Covenant People of God).

첫째, 교회는 계약에 의해서 “선택된 백성”입니다(렘전 2 : 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계약의 내용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계약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노릇

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호 1 : 9)”라고 했고 베드로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벧전 2 : 10)”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백성 노릇을 못해서 파기된 계약이 은혜로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잃어버린 계약이 다시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과 죄로 인해 파기되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되어서 교회 안에서 택하신 족속으로 연합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는데 이스라엘의 거역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 가운데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다시 부르셔서 “거룩한 나라”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새계약이라 합니다(렘31장).

둘째, 교회는 계약 관계에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시는데 이것은 계약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선택하시고 계약하시고, 계약하시고 선택하십니다. 그러므로 선택과 계약은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계약 총회가 모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약 총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약 총회는 시내산에서 모였습니다.

시내산은 엄청난 돌산으로 한 쪽은 호렙산이라 부르고 한 쪽은 시내산이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임재)이 구름으로 덮인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백성이

모였습니다. 여기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총회라고 합니다. 시내산 총회는 천상의 총회와 지상의 총회가 함께 모여 있는 총회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총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린 것이 바로 시내산 총회요 이 총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신4:10.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을 모으라”)

총현교회가 수천명이 모이고 오늘 이밤에 우리가 모인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세째, 하나님의 총회는 계명을 받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출 5:1) 홍해를 건넌 후 이제에는 광야를 계속 행진해야 되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야 되고 가나안에 입성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계명)을 받아야 했습니다. 총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게 하려고 모이게 한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모든 목사들만 모이는 것이 총회가 아니고 매일 같이 모이는 개교회의 모임이 하나의 총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총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네째, 하나님의 총회는 감사와 찬양의 반응을 드린 모임이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견딜 수 없어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다음에 기뻐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총현교회의 오케스트라나 핸드벨 팀의 연주가 사람의 귀만 즐겁게 하는 것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쟁과리일 뿐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찬양 예배의 모델이 됩니다.

예배의 최고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서약을 지키려는 자세입니다. 계약을 지키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계약 갱신 총회가 모였습니다.

인간들이 계약을 자꾸만 무너뜨리니까 하나님은 계약 갱신 총회를 소집하셨습니다(창31:11-12). 하나님의 계약은 시대마다 갱신에 되었습니다. 신명기라는 이 계약 갱신을 위한 책입니다.

계약 갱신 총회는

첫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총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모이는 총회가 아닙니다. 사람끼리 모여봐야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둘째, 속죄를 위해 모인 총회입니다.

속죄의 날에는 죄를 슬퍼하며 통회하는 총회,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재를 뿌리면서 통곡하는 총회로 모였습니다.

세째, 축제의 총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어느 정도의 잔치인가 하면 너무 기뻐서 그저 찬송이 터져 나오는 잔치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예배는 지나칠 정도로 엄숙합니다.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못견디도록 즐거운 기쁨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네째, 예배하는 총회입니다.

예배하는 총회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각종 악기가 동원되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느헤미야 총회는 율법을 읽을 때에 백성들은 서서 들었고 아멘과 찬양으로 화답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부를 때는 다 일어서서 부르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는 다 앉아서 읽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다 일어서야 됩니다.

다섯째, 하나님이 임재하신 총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먼저 나타난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과 대화하시려고 인간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배신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 임재는 베엘에서 나타납니다. 베엘은 하나님의 집(House of God)입니다.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들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엘입니다. 베엘에서 꿈속에 천사가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하는데 유명한 신학자 게할드스 보스의 재미있는 번역을 빌리면 내리락 오르락하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한다고 하였으니 이 말씀 속에는 이미 천사가 야곱과 함께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이 이미 임재해 세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곳이 시내산 총회요, 시내산 총회 다음은 텐트 총회(Tent of meeting), 회중 총회가 모였습니다. 이것이 장막입니다(요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의 거하함에 곧 장막 (tabernacle)으로 번역됨).

그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시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

님은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성전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의 몸되신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행 2장)하나님은 지금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신약까지 넘어오는 것이 바로 성경 신학입니다. 조직신학은 창세기나 계시록이나 여기 저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주제들을 조직해서 가르치나 성경신학은 계시의 점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자신을 나타내 주시더니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완전히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을 계시의 완성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입니다.

(3) 계약 갱신 총회가 있는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첫째, 기적적인 은혜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부르시는데 기적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가운데 이삭을 낳은 것이 기적이요 이삭이 죽음의 칼날 밑에서 양을 제공받고 살아난 것이 기적이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어린양의 피로 산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기적입니다.

둘째, 계약 안에서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렘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사야 43장에는 너는 내것이다(You are mine)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곧 내 생명이 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의 사랑을 만백성에게 나타내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나)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봉사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봉사와 신분의 변화(야곱→이스라엘, 여수론, 헤파바, 새 이스라엘)를 가져옵니다. 여기에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봉사라는 말은 영어로 예배(Service)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도 봉사입니다. 봉사에는 세가지 봉

사가 가능합니다. 예배봉사, 교육봉사, 선교봉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며 교육은 성도에게 하고 선교는 세상에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2) 교회는 그리스도(메시아)의 나라입니다.

구약에는 그리스도의 나라, 몸되신 교회, 새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구약의 계약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성별(Distinctiveness)이었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백성입니다. 이 구별은 안하면 큰 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으로 부터 구별 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소유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성별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야 되고 제사를 깨끗이 구별해야 되고 지리적 성별까지도 요청합니다. 예루살렘은 큰 성지입니다.

성별 다음에는 선교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심은 이방인에게 빛을 비추려 하십니다.

3) 교회는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성령은 교회의 예배와 교육, 선교, 구제를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교회는 성령의 은사로 유지가 되는데 말씀봉사, 질서봉사, 자비 또는 구제봉사이니다. 말씀봉사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직분이요 질서봉사는 그리스도의 왕직분이며 자비봉사는 그리스도의 제사봉사이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3중직이요 이 3중직이 그대로 교회안에 반영되어서 말씀봉사는 믿음으로, 질서봉사는 사랑의 법으로, 구제 자비봉사는 소망의 약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교육, 선교를 통해서 말씀봉사, 질서 행정봉사(치리), 자비 구제봉사를 합니다.

교육과 선교와 구제의 세 기둥을 세워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지상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며 바로 우리 총현교회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2. 교회의 속성

교회는 네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사도성입니다.

신앙고백이 정확해야 되고 신학이 확실해야 됩니다.

둘째,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지상에는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란과 분쟁과 이단과 우상을 섬기는 죄가 있는 형편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였읍니다. 엉망진창이 된 교회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으니, 우리는 항상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세째, 우주성입니다.

교회는 시공간적으로, 인종적,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주적(Cosmopolitan international)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어 예배를 개설한 것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총현교회는 멀리서 가까운데서 다 오고 대한민국만 아니라 영국, 미국, 독일 사람도 오고 소련, 중공 사람도 와야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사가 있는 곳마다 우리의 교구이니 교구를 국제적으로 확장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네째, 연합성입니다.

교회는 분열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하는 곳입니다.

사도성이 있을 때 믿음으로 연합되고 거룩성이 지켜질 때에 사랑으로 연합이 되고 우주성이 이루어질 때에 소망으로 연합이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잘 되어야 하는 것처럼 다른 교회도 다 부흥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서, 메시아의 나라로서,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아름다운 속성을 지닌 교회가 되어 예배, 교육, 선교, 구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깨끗한 교회, 질서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교회를 꼭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ㄴ

이상적 교회선교

이 동 주
(합동신학원 교수)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이 정녕 알찌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초대 선교사역을 한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를 한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로 맹세했던 그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두 달도 못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고 하면서 로마에까지 전도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달라집니까? 과거와 새로운 베드로 사이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성령강림입니다.

사도행전 1장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약속이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2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강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에 약속하고 살아계실때에 마지막 말씀으로 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또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성과 지성이 있는 사람들이 2천년 전에 그 어떤 청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요, 그가 나를 대속했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내 이성으로 안됩니다. 성령이 내게 계시서 내가 믿는 그 예수를 증거하게 합니다. 성령은 선교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분이요 그 분이 나를 이끌어 가면서 성취하시는 분이요 나는 도우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선교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그 때로부터 다시 오실 그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선교는 두가지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넘어가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고 모든 전도와 봉사 이것을 다 포괄한 넓은 개념으로도 사용됩니다. 이 선교는 지역 교회가 가지는 유일한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중지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무관심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선교할 때가 되었는데도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흠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흠어져서 사마리아에도 가고 안디옥에도 가서 거기서 전도하니가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선교사들을 향하여 너희들 때문에 서구화 되고, 너희들 때문에 종속화되고, 우리의 동질성을 찾을수 없으니 너희는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토착문화와 동질성을 찾게되고 자기들의 토착종교를 부흥시키고, 자기들의 종교를 다시 부흥시켜 혼합종교를 만듭니다.

이렇게 성경을 다른 것으로 이해하여 껌데기는 쓰고 알맹이는 썩 빼놓고 자기의 문화권을 집어 넣어 다른

개념, 즉 혼합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인도 같은 곳에서는 그런 예가 허다합니다. 그런 일이 WCC 안에 많이 들어와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이 세속화, 이데올로기와 전체주의 속에 막 혼합이 되어 세속사와 구속사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의 약 90%가 선교의 대상이라고 서울 선언문에서 발표되었는데 여기는 무교회지역 성령이 없는 지역이 다 포함되었는데 그 중에 아시아 인구는 세계의 30%까지 된다고 하며 아시아에 있는 교회수는 2-3%이고 97%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힌두교인, 불교인, 무교인, 유교인 아니면 무신론 공산주의입니다.

현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국인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교회는 젊은이들이 가득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자원이 풍부하고, 한국 교회는 선교의 배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박해를 잘 견딜수 있는 연단을 받았습니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와 무신론자들이 가득한 아시아에서 얼굴은 같고 눈색깔이 비슷합니다. 성품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의 모습은 지역교회가 낳은 아이입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신앙과 인격이 형성되고 그러한 선교사는 또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병든 교회는 병든 일군을 길러냅니다. 선교사 자격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산 신앙, 즉 믿음에 비밀이 있는자, 성령에 이끌림을 받고 사는 사람, 철저한 중생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의 비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에 대한 확신과 이끌림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겠습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택할 때에는 보내기 아까운 사람, 아 저사람 한국에 있어야 한국교회가 바로 될텐데 하는 국내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둘째, 사명자는 특수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군인도 군인이 되려면 군사훈련을 받아야 되듯이 선교사도 선교사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13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신압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선교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악한 영의 통치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으로 옮겨주는 것이니 악한 마귀의 대적이 있는 것이고 그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진신 압주를 입고 무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째, 인간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째, 선교사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마음, 건강한 몸을 가져야 선교지에서 일기 쉬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평신도들이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선교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보낸 선교사는 1년, 2년, 3년에 열매가 없어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나라같이 1~2년 있으면 50명 모이고 3년하면 200~300명 모이고 그런게 아닙니다. 열매가 무르익어서 따야 할 곳도 있지마는 엉성귀는 건어 내버리고 돌작발 골라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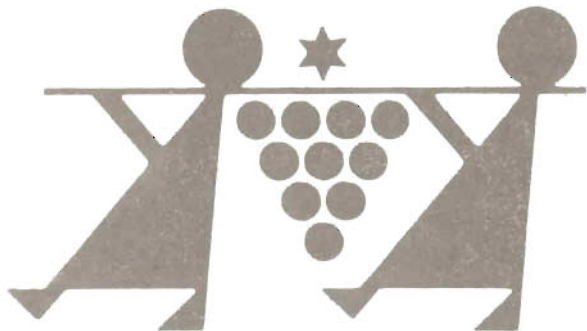
선교사와 선교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해해야 됩니다.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있어야 될 곳도 필요하지만 그곳에서 언어도 배워야 하고 그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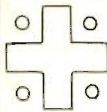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또 그곳 원주민 교역자를 양성할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교회도 설립해야 되고, 그들 자녀도 교육해야 하고, 또 거기 때로는 집에서 쫓겨난 사람을 받아도 줘야 되고, 또 장학금도 줘야 되고 이런 어떤 경제적인 것들이 무한대로 요구될 수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선교사들이 얼마나 고독한가를 이해하면서 편지도 보내주고 물건도 보내주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선교가 지속되지 않고 발전이 더딘중에 하나는 자녀교육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떡하면 선교사 자녀들을 도울 것인가. 이에 대해서 심각하고 구체적인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선교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눈만 나가서 선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선교는 온 지체들이 한 뜻으로, 한 소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림하실 때까지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선교는 하나의 공동 투쟁입니다. 우리가 주저할 때, 우리의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저할 때는 하나님이 흠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깨어서 날 회생하고 새롭게 헌신합시다. 김





이달의 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와 허물로 영원한 형벌 아래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시어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천국을 기쁨으로 누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웁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충현교회를 세우시고 크게 성장케 하시며 새 예배당을 건축케 하시고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옵고 찬송을 드리웁니다.

교회설립 35주년을 맞이하여 예배당을 봉헌하기 위하여 지난번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사명과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며 온 성도가 합심하여 비상 연속 기도회를 통하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여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시온성에 입성하는 은총을 주옵소서.

교육, 선교, 구제의 사명을 다하는 개인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예배당 건축 마무리 공사가 속히 완공되도록 필요한 자재와 인력과 물질을 풍성히 주옵시며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김창인 원로 목사님 위에 영력을 더하여 주시며 이종운 위임목사님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불드시우고 남·여 교역자 위에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충현의 강단은 언제나 생명의 말씀이 생명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하시사 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게 하시며 양적으로 이 웅장한 교회가 모일 때마다 차고 넘치는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새우신 온 당회원과 직분자들과 온 성도들이 충성된 봉사자들이 되게 하시고 순간 순간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과 동행함을 나타내는 빛의 사자들이 모여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천히 안보하여 주옵시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주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며 국민을 사랑하는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학원이 정상화되어 폭력과 갈등과 불의와 무질서가 사라지고 공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어 서울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이 성공케 하시며 세계에 복음을 수출하는 선교의 기회로 선용케 하옵소서.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 나가 수고하시는 선교사 위에 능력으로 함께 하옵시며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 되는 기적도 주셔서 북한 땅에도 성령의 계절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卍

손 동 운
(예배위원회 서기)

영어예배 개설

지난 8월 28일(주일) 오전 9시
갈릴리 홀에서 영어예배 개설 감사예배가
있었다.

약 200여명의 내·외국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종윤 위임목사님의 사회로 시작된
영어예배는 윤영탁목사의 기도,
테레파이목사의 설교로 진행되었다.

이로써 내국인들은 물론 외국인들이
충현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충현 암송성경 기록 제작

충현 암송성경은 성경 66권을 충현의 온 성도가 암송하여 자필로 기록하
작한 책이다. 이것은 영구 보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후손들에게 신
유산으로 물려 주고자 지난 8월 15일(목) 새벽부터 기록이 시작되었다.

원로목사님의 창세기 1장 1절, 위임목사님의 마태복음 1장 1절의 암송
을 시작으로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평신도, 글을 쓸 수
는 어린아이들까지 온 성도가 참여하여 현재까지 약 3,000여명이 기록하였

동시 통역예배

지난 8월 7일(주일)부터 3부(11시)
예배시에 외국인을 위한 동시통역예배가
영어와 일어 2개국어로 실시되고 있다.

동시통역에 수고하시는 분은 영어통역에
손영준목사(총회선교훈련원 원장)와
일어통역에 지경애집사(윤인현장로 부인)가
각 각 수고하고 있다. 앞으로 영어와 일어
뿐만 아니라 불어, 독어, 서반아어,
중국어, 아랍어등도 준비중에 있다.



회는 지난 9월부터 올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금요일 5시 30분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충현 제자원을 개원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회의 머리되신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데 그 목적을 두고있는 제자훈련은 충현교회 직분자(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서리집사, 권찰, 교사, 찬양대원, '89년도 신임 임직자 후보) 전원을 대상으로 있다.

재까지 수료한 자수는 2,3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장애자 돕기 바자회

지난 9월 2일(금)과 3일(토) 이틀간 교회설립 35주년 기념행사 중 첫번째 행사인 자선바자회가 본당 전면 광장에서 개장되었다.

2일(금) 오전 10시 본당 앞에서 개회예배가 있었고 예배후 이종운 위임목사님과 김창인 원로목사님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 테이프를 끊음으로서 이틀간의 자선바자회는 막이 올랐다.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적극 참여하여 수제품, 의류, 가전제품, 생활용품, 서화류, 자기류, 완구류, 장신구, 수예품, 수공품 등 물품을 1점 이상씩 기증하여 이틀간의 바자회는 성황리에 진행되었고 교구별로 개장된 음식점에는 많은 성도들이 몰려 10여분 이상을 기다려야만 차례가 오는 장사진을 이루었다.

이번 바자회의 모든 수익금은 전액 장애자를 돕는데 쓰인다.





지난 9월 4일 (주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는 교회설립 35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있었다.

온 성도들이 본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오늘이 있기까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로 드려진 이날 예배는 이성근목사의 사회, 임광식장로의 기도, 연합찬양의 찬양, 이종윤 위임목사님의 '내 잔이 넘치나이다'란 제목의 설교로 진행되었으며 장기근속자 표창식도 있었다.

이로서 35년간 목양하신 김창인목사님은 원로목사님으로 모시고 이종윤 위임목사님의 지도 아래 도약과 성장의 제 2기가 힘차게 펼쳐지게 되었다.



장기 근속자 수상

교회는 교회설립 35주년을 맞이하여 장기 근속자를 선정하여 지난 9월 4일 (주일) 저녁예배시에 시상하였다.

이날 근속자 수상자는 총 194명으로 다음과 같다.

- 20년 근속 : 교역자 1명, 장로 4명,
교사 2명, 찬양대 1명
- 15년 근속 : 교역자 2명, 장로 2명,
권사 9명, 교사 9명
- 10년 근속 : 교역자 3명, 장로 11명,
권사 98명, 교사 39명,
찬양대 13명.

재 상봉의 날

지난 9월 4일(주일) 오후 3시 본당에서는 6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재 상봉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날 예배는 이종윤 위임목사님의 사회, 윤영탁목사의 기도,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피차에 사랑감이 됩시다'라는 제목의 설교로 진행되었다.

2부로는 본 교회에 계시다가 타교회 교역자로 가신 분들과 과거에 충현교회에 출석했던 옛 성도들이 현재 충현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성도들과 한자리에 모여 본 교회의 발전과 성장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그리스도안에서의 기쁨을 나누며 한 형제임을 다짐하는 감격적인 시간을 가졌다.

충현살롱 대학(경로)개교

지난 9월 8일(목) 오전 10시 갈릴리움에서는 400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1회 충현살롱 대학 개강예배가 있었다.

이종윤학장(위임목사)의 사회, 이창업학감의 기도,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소망을 품고'라는 제목의 말씀, 학생대표 윤두한장로의 신서, 박영식장로의 광고,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축도로 진행되었다.

충현살롱 대학의 설립 취지는 변천하는 사회속에서 창조적이며 긍정적인 삶을 위하여 노년기에 오는 허탈감과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크리스찬 노인상을 정립하고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모아 사회에 기여하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함이다.

입학자격은 만 60세 이상의 남·녀로 교육참여에 지장이 없는, 본교 교착을 준수하며 품위에 결함이 없는 분으로 종교에 관계없이 입학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충현살롱 대학의 등록원 인원은 391명이며 등록자를 연령별로 분류해 보면 60세~69세가 81명, 70세~79세가 198명, 80세 이상이 70명, 미확인 42명이며 본 교회 교인이 264명, 타 교회 교인이 90명이며 불신노인도 37명이나 등록하였다.

수업년한은 제 1학기가 11월 까지이며 제 2학기는 89년 4월~6월, 제 3학기는 89년 9월~11월, 제 4학기는 90년 4월~6월까지 2년이다.

충현살롱 대학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갈릴리움에서 열리고 있다.

인지 제아, 자폐아, 정서장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지난 9월 (토) 오후 2시 갈릴리 홀에서 사랑부 개교예배를 이종운 위임목사님을 모시
렸다.

들은 예배와 개별 성경학습을 통하여 신앙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한 명에 교
명이 돌보고 있다.

정학습은 두주간에 걸쳐 재반복하고, 아이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시청
동(그림, 만들기, 손유희) 등 입체적인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기교육 세미나, 교사 기도회, 개별학습 연구반표와 학부모의 신앙교육을
학부모 초청세미나와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주일 정기활동으로는 새친구 환영, 생일잔치, 찬송, 율동, 음악치료, 근육
등이 있으며 분기 및 계절에는 캠프, 발표회 등이 있다.

배는 매주일 오후 1시에 소석관 107호에서 드린다.



소석관 봉헌예배

지난 9월 11일(주일) 오후 6시 교회설립
35주년 기념행사 봉헌분과 주최로

소석기념관 봉헌예배가 교회뜰에서 있었다.

최석주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봉헌예배는
윤종성장로의 기도, 이종운 위임목사님의
봉헌의 말씀, 연합찬양대의 찬송,
방지일목사(영등포교회 원로목사)의 축사,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답사, 이응선장로의
광고, 이종운 위임목사님의 축도로
진행되었고 그후 순서로 소석관 봉헌을
기념하는 비문 제막식이 있었다.

비문에 새겨진 글귀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현교회를
세우시고 천국일꾼을 키우시기에 전 생애를
바치신 소석 김창인 목사의 남기신 신덕을
감사하여 그 뜻을 기리고자 교회설립
35주년에 즈음하여 이 건물을 소석관이라
이름하고 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9월 11일 (주일) 저녁예배를 교회설립 35주년 기념 자선 음악예배로 드렸고, 소년, 소녀 가장을 돕기 위하여 연합찬양대가 중심이 되어 드려진 자선 음악예배는 찬양드리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소년, 소녀 가장들을 위한 구제헌금도 있었는데 온 교우들이 기쁨으로 참여하여 큰 성과가 있었다. 이 구제헌금을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전달되었



에바다부 개교예배

지난 10월 8일(토) 오후 3시 베다니 홀에서는 청각장애자를 위한 에바다부 개교예배가 13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청각장애자로 그동안 복음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이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다.

에바다부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화로 가르치고 책임있는 교사 한분 한분이 정성껏 지도하며 청각장애자들에게 필요한 제반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 자율적인 활동을 돕고 교회행사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아동부와 성인부로 나누어 교육을 하고 있다.

아동부는 매주일 오전 9시 베다니홀에서, 성인부는 매주일 오전 11시(수화통역예배)에 본당에서 드리고 오후 1시에 베다니홀에서 성경공부 및 친교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홍해작전·여리고작전 이후

조 선 근

(장로, 편집위원)

지난 몇달 사이에 우리가 치른 홍해작전과 여리고작전은 총현의 지력과 단합된 아름다운 모습을 실감나게 보여준 역사적인 행사들이었다.

●개신교 영적 각성운동 확산

6월 6일부터 시작된 새벽기도회에는 평균 3천명씩 모이고 특정한 날에는 7천명이 운집하기도 했다. 그 시간이 되면 서울중앙의 택시들은 총현교회로 달렸다. 차를 잡으면 으레 운전기사가 먼저 총현교회로 가느냐고 물었다. 전날 밤 교회에 와서 주무시고 나오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인천·수원·평택에서도 차로 달렸다. 모이는 열심, 뜨거운 집회에 우리 스스로도 놀랐다. 이 영적 각성 운동은 개신교 여러 교회에도 번져나갔다.

그즈음 「총현교회 40일간 작전」이란 기사로 사진과 함께 크게 다룬 어느 주요 일간신문은 “총현교회의 영적 각성운동은 바로 길진주 목사가 이끈 회개운동의 연장이자 제2의 회개운동인 셈이다”하여 1907년 민족의 각성을 외치며 전개한 초기 한국교회 회개운동에 비유했다.

개인과 가정, 교회와 민족사회, 국가적으로 위급한 때에는 비상작전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데서 비롯된 홍해작전은 회개운동이자 기도운동이었다. 허다한 간증, 생생한 믿음의 감동스런 글들을 우리는 「홍해작전 뉴스」작전기·승진보에서 읽었던 것이다.

한달이 더 지나 8월 24일부터의 한주간은 여리고작전이 열리고 있었다. 교회설립 35주년을 기해 책임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실천하기 위한 비상기도회였다. 비상연속기도회 64회, 저녁신앙강좌 6회, 비상새벽기도회 7회가 심도있게 진행되었고, 이어서 장애자돕기 바자회가 성황리에 마쳐졌다.

●우리 교회에 대한 많은 주문들

어느 교우의 표현대로 “눈코 뜰새 없이 정신없이” 두 작전에 참가하면서 마음속에 느껴져 된 것은 총현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한국의 교회들이 관심

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이다. 많은 성도들이, 이 민족사회가 총현교회를 주시하고 뭔가 기대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큰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큰 짐을 지어야 하는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80년대 초에 교회들 중에 일부가 대형화되고 있을 무렵, 교회 안팎에서는 대형교회에 대해 말도 많았다. 예배당만 크게 짓는다, 이웃에게 무관심하다, 개교회 교세확장에만 전력투구한다, 헌금을 바로 못쓴다는 등 비판의 소리들이 거셌다. 사실 교회가 재구실을 못한다면 교인수 많고 큰 예배당 가진 것이 무슨 자량이 되겠는가.

여리고작전 저녁신앙강좌는 우리에게 격려와 총현교회가 어찌해야 된다는 자극을 준 기회이기도 했다. 총현교회가 큰 예배당을 지어 놓았으니 시야를 넓히고 이런저런 좋은 일들을 시작해 달라, 예배당 큰 것으로 유명해지기보다 구제를 잘해서 유명한 교회 되어 달라, 주님이 기뻐하실 사랑의 실천운동에 앞장서 달라, 우리는 이런 소리들에도 경청하고 기대와 바람을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작은 교회가 하기 어려운 일들을

두 작전을 주의 은혜중에 치른 우리는 오늘의 총현교회로 성장시키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린다. 그와 함께 열 달란트 받은 교회로서 큰 예배당을 지은 교회답게 이 민족과 사회를 위해 큰 짐을 진다는 철지한 인식을 가지게 된다. 작은 교회들이 하기 어려워하거나 할 수 없는 일들을 찾아 사랑과 회생, 봉사와 충성으로 이 시대의 책임있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것이다.

합쳐졌던 새생전 완공도 눈앞에 두고 있다. 새 위임목사를 모시고 총현의 제2시대를 감격 속에서 맞이한 우리 교회는 이미 「천국일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자 구제」라는 세 기둥을 세우고, 그동안 큰 예배당 정성껏 짓는다고 다소 소홀히 했거나 힘을 기울이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추진시키고 있음을 본다.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총현교회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소오다(一少五多)

우 기 전

(장로·현의학박사)

지금부터 2300여년 전에 쓰여진 동양 의학의 원적 인 내경(內經)이란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다.

「사지소주(邪之所湊) 기기필허(其氣必虛)」이를 쉬운 말로 풀어 쓰면 병독(病毒)이 몸에 들어오는 것 즉 병이 생기는 것은 정기가 허약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된다.

우리 인체 안에는 누구에게나 자연치유력(自然治癒力)이라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 내지는 원상 회복 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힘을 동양의학에서는 정기(正氣)라고 표현하였다.

건강을 지키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이 정기를 길러서 병독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항상 활력이 넘치는 건강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정기를 기르는 소위 양생론(養生論)에서 일소오다법(一少五多法)을 중심으로 건강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소식(少食) : 오래 살려면 적게 먹어야 한다.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면 확실히 장수할 수 있다. 여러 동물 실험을 통하여 젊거나 중년상태의 동물에게 천천히 열량 섭취량을 줄여 나가면 염색체가 젊어지고 수명도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적게 먹음으로 신진대사의 효율도 높여 주고 체중의 조절도 가능하며 노화를 방지할 수도 있다.

얼마나 적게 먹는 것이 좋을까. 현재 식사량의 20%

쯤 줄이는 것이 적당하다. 그러나 이는 천천히 시행할 것이요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

주의할 일은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결핍을 초래하지 않도록 균형있는 식사를 해야 하며 섬유질의 섭취량을 늘리고 소금의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

특히 변비증에는 섬유질의 다량섭취가 바람직하고 고혈압인 사람에게는 소금의 섭취량을 일상 섭취량(15~20g)의 1/2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가공적 가공식품은 멀리 하는 것이 좋다.

다동(多動) : 운동은 무리가 없어야 하고 규칙적이어야 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적절한 운동을 계속하면 근육과 장기가 퇴화하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의 순환이 순조로워지고 산소의 흡입 효율을 높여 줌으로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근력과 유연성을 길러 준다. 운동은 직접적으로 수명을 연장시키기 보다는 신체 기능의 향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현재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다.

다접(多接) : 많은 사람과 접촉하라는 뜻은 적극적으로 친구를 만들고 교제를 하라는 뜻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대하기를 싫어하고 홀로 지내기를 좋아하는 이가 있는데 이런 경우 몸의 건강에도 이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많은 사람과의 사귀는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준다. 스트레스는 쌓일수록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세포 노화가 촉진되는 등 여러가지 형태로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내 자신에게는 건강을 보상받는 일거양득의 다점(多接)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안다.

다설(多泄) : 될 수 있는대로 많이 배설해야 한다. 중년 이후가 되면 흡수 기능 보다 배설 기능이 나빠진다. 몸의 여러 곳에 노폐물이 축적되면 성인병이 생긴다. 신경통은 근육속에 본래 배설되어야 할 노폐물이 끼기 때문에 그곳이 나빠지는 것이다.

옛말에 삼쾌즉장수(三快則長壽)라는 말이 있다. 즉 쾌식(快食), 쾌변(快便), 쾌면(快眠)의 삼쾌를 소유하면 무병장수한다는 뜻이다. 그중 쾌변은 다설 조항에도 부합되는데 이는 우연이 아니다.

배설의 방법은 세가지가 있다. 소변, 대변, 그리고 피부의 호흡과 땀이다. 소변의 배설을 돕는 방법은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음식물의 내용이다. 육류의 다량섭취는 혈액의 점도를 높이고 소변 배출을 방해하나 식물성 식품은 혈액을 맑게 해주고 이뇨성(利尿性)이 강하다. 그러므로 식물성 식품을 이뇨제라 생각하고 많이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을 준다.

두번째는 생수(生水)를 많이 마셔서 온갖 노폐물을 씻어내는 것이다. 3분음수법(三分飲水法)이라는 말이 있다.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에 생수를 큰 컵으로 한잔씩 마시는 방법이다. 이때 한가지 주의할 일은 물을 한숨에 들이마시면 안된다. 한 컵을 마실 때 3분 동안에 천천히 마셔야 한다. 물을 씹어 먹으라는 말을 상기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신경통이 치료된다. 배변(排便)이 되지 않는 변비증(便秘症)에 걸리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숙변(宿便)에 대장의 점막에 달라 붙어 있으면 점막 세포가 찢조를 일으키고 오래되면 암세포로 이변을 일으키는 수가 있다. 그래서 변비증이 오래되면 대장암(大腸癌)에 걸리기 쉽다. 문제는 또 있다. 변비가 오래되면 대변속의 인돌, 스카톨등의 악취 성분이 장의 점막을 통해 간장에 흡입해서 피속으로 들어가면 정신이 멍해지고 피부에 어

드름 같은 것이 생긴다.

변비를 예방하는데도 식물성 식품이 좋다. 또 결명자(決明子)를 진하게 달여서 수시로 마시면 좋다. 홍해작전 때 결명자 차(충현차)를 공급하였는데 그때의 차보다 훨씬 진하게 달여서 장기간 복용하면 대장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변비증을 풀어주고 또 눈도 밝게 유지시켜 준다.

다휴(多休) : 앞에서 언급한 다동과 모순되는 잠을 갖게되나 다휴 속에는 자신을 응시하고 하나님과 합일(合一)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뜻이 있다. 물론 단순한 휴식시간을 갖는 것도 무의미한 일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피로회복에는 쉬는 일보다 효과적인 치료법은 없다. 몸과 마음을 잡념 없이 폭 쉬는 것은 다음 일을 위하여 가장 확실한 에너지의 충전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리듬있는 생활은 즐겁고 효율적이며 건강 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다망(多忘) : 사람에게에는 망각 작용이 있다. 기쁘거나 슬픈 기억들이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잊어지게 되어 있다. 시간이 악이란 말은 아무리 괴로운 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는 말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과거의 원한이나 괴로웠던 일, 슬픈 일들을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런 과거속에 사는 사람은 보기에도 민망하다. 건강을 관리하는 데에도 과거의 비탄이나 되짚고 눈물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낸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인가.

성경에는 이런 권절이 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후 7:10)

어두웠던 지난 날들을 기억에서 지워 버리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만 바라보면서 세상을 힘차게 살아 나간다면 어찌 육신의 건강만 있겠는가.

위에 서술한 일소오다법이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고 증진시킬 것인가 하는 건강 방법론의 하나라 한다면 이제 건강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수 없다. 그래서 세계 보건기구(WHO)가 보건현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의 정의를 보고 이 글을 맺는다.

“건강이라 함은 단순한 질병이나 허약의 부재상태(不在狀態)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안녕의 완전상태(完全狀態)를 말한다.”

르네상스(Renaissance) 시대

김 연 이

(전도사·편집위원)

항상 평화를 원하면서도 전쟁을 되풀이하고 훌륭한 예술을 낳는 반면 엄청난 죄악을 범해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 가운데는 사고와 생활방식이 그 전시대와는 다른 새 시대를 창조한 시대도 있었다. 자기 시대를 인간이 완전히 태어난 시대라고 믿고 있던 르네상스 시대가 바로 그것이다.

1. 르네상스

르네상스란 중세의 종말에 가까운 기원 1,300년 경에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눈부신 계몽운동이다.

“암흑시대”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인이었다. 로마가 만족의 침략을 받은 시대를 조잡한 장막에 가려진 시대라 했고 그것에 이어진 10세기를 잠자던 시대라 했다.

안토니오 필라레테는 중세를 가리켜 “이탈리아에서는 학문이 쇠퇴하여 사람들의 말투가 천해지고 라틴어가 잊혀진 시대”라고 규정지었다.

일단 내려진 장막을 걷어 올리고 위대한 로마의 문학, 유적, 그 밖의 갖가지 가치있는 것에 다시 생명을 불어 넣는 것은 그들의 기쁨이며 기필코 수행해야 할 의무였다.

이러하여 새 것을 알기 위해 옛 것을 익히고 통달해야 하므로 중세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하려면 고대로 되돌아가 저 위대한 문명을 낳는 로마시대의 유훈을 배워야 했던 것이다.

이와같이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고대문화의 연구를 휴머니즘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그야말로 때를 만난 사상이었다. 고전 시대의 영광을 부활시켜 자기

들의 것으로 만들자는 그 정열은 신앙을 중심으로한 중세문화에 싫증을 느꼈던 도시 엘리트들을 사로잡았다.

중세의 신학 중심의 학문보다 좀더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바라는 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다. 학문적 재능과 함께 세상살이의 지혜를 가질 것도 요구된 것이다.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문주의적인 연구 과정이 만들어지고 고전강독(古典講讀), 문법, 수사학, 역사, 도덕, 철학 등이 거기 포함되었다. 이런 과정을 인문학이라 하였으며 그 학도를 휴머니스트라 불렀다.

당시의 휴머니즘은 오늘날의 휴머니즘과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신의 존재를 경건하게 인정하는 한편 고대의 이교적 세계에 산 사람들의 지해도 이해하고 그들에게 공명하는 인생관을 뜻했다. 미학(美學)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적 지식의 실용성을 인정하며 다시 거리낌 없이 삶을 구가하고 스스로 사회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는 일에 인생의 의미를 인정하는 인생관을 말했다.

자칫하면 내세에만 사로잡히기 쉽던 중세의 인생관이 휴머니즘에 의해 수정된 것이다. 천국에의 준비보다 현세에의 성취 이것이 당시의 휴머니즘이었다. 정신적인 면도 있었으나 물질적인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회 즉 실리적이고 빈틈 없고 자의식에 넘친 야심에 찬 세대를 반영한 것이었다.

2. 목적보다는 수단을

보기에는 평온했던 중세는 실은 적잖은 불만을 내부에 감추고 있었다. 사람들은 교리에 대해 혹은 국가에 대해 성차지 않음을 느끼고 있었다. 마음 속으로는 은근히 세상의 개혁을 기대하고 부흥을 원하고 옛 로마의

영광이 다시 되살아날 때를 기다렸다.

중세 학자의 대부분이 철학적인 문제와 혼자 씨름하며 명상하는 은둔자 타입이었는데 비해 르네상스 시대 학자들은 훨씬 일반인이었다. 교사, 진도사, 외교관 혹은 대신이 되어 일반 사회에서 활약했다. 교직자들은 중세의 청빈, 금욕, 은둔을 이상으로 하는 생활에 등을 돌리고 즐거운 가정생활을 구가하며 유리한 재산 운용을 찬양했다. 옛날의 승원의 독방이나 먼지 투성이의 맨발의 생활은 이제 정신면의 계몽에 있어서 필요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았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간이 해야 할 역할은 이윽고 다가올 죽음에 대비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식의 피동적인 것은 아니게 되었다. 육체적인 불행만 하더라도 죄에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죄값이 아니라 사소한 우연에 지나지 않으며 운명의 여신 포르투나의 번덕일 뿐이라고 생각하였다. 포르투나는 인간의 두뇌 작용 하나로 좌우할 수 있는 존재였다. 운명이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활용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당시의 개인생활 특질을 한마디로 말하면 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사람들은 굳이 기독교의 설교에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존경할만한 유익한 인생의 지표라고도 생각지 않았다.

르네상스 작가들은 인간 그 자체를 창조자로서 찬양했다. 그들은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죄업은 미미한 것이라고 했고 오히려 자기를 위한 사고, 행동 능력, 예술, 창작능력, 타인의 운명을 좌우할 능력을 강조했다.

중세 사람들이 영혼의 탐구에 몰두한데 비해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의 성격을 아는 것, 자기를 과시하는 데에 쏠렸다. 중세의 화가, 철학자, 작가는 오직 신을 찬양하고 신의 뜻을 밝히는 데에 전력을 기울였으나 르네상스 시대에는 지적 활동의 각 분야가 뚜렷이 구별되어 저마다의 분야에서 목적보다 수단이 제1의적인 것으로 되었다.

3. 신앙의 불꽃

르네상스 시대의 교회는 내세 뿐 아니라 현세의 생활에도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신의 종들은 병원의 직원, 학교의 교사, 금융업, 교아원, 구빈원 등의 경영자가 되어 모든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각지를 순회하며 설교하는 수도승이나 개혁의 의지에 불타는

진도사들의 설교는 사람들을 새로운 신앙으로 이끌었다. 교황이 교회의 지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도 가끔 있었으나 그것은 이웃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교황령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혼란 시대에 교회를 지탱한 것은 헌혈적 정신과 활력에 찬 신앙이었다. 15세기의 이탈리아 사람들은 항상 통회하라는 설교를 들었다. 시에나에서는 어떤 은사(隱士)가 어린이에게 해골이 달린 지팡이를 들게 하여 사람들에게 지옥에 떨어지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다니게 했다. 밀라노에서는 어떤 예언자가 대성당의 설교단을 독점하여 수 개월에 걸쳐 운명의 무시움을 가르치는 설교를 하였다. 설교자들은 죄를 뉘우치라고 역설하며 각지를 다녔고 성직자와 교황의 잘못을 비난하기도 하였다. 설교는 야외나 연단이나 안뜰에서 일하는 일이 많았고 술한 사람들이 모였다. 설교 후에는 허식의 화형식(火刑式)이 거행되었다. 설교에 자극된 군중은 세속적인 책이나 그림 또는 가발 등을 닦아 불 속에 던졌다. 교회의 개혁을 지향하는 종교가는 가끔 정신적인 면만 아니라 정치적인 비판을 하다가 화형에 처하게 되기도 했다.

한편 르네상스 시대의 성직자는 세상에 봉사하는 사람도 많았으나 수도원에서 차분한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도 있었다. “성직자는 가르치기 보다는 수양을 쌓으라”는 가르침으로 종교적인 열정에만 몸을 바치는 자도 있었다.

4. 결어

교리에만 집착하고 성경적인 삶이 없는 곳에 공산주의가 탄생 되었듯 인생의 실제 문제에 등한하고 오직 내세적 교리에만 집착되어 있던 중세 신앙체계가 르네상스를 배출했다.

르네상스의 긍정적인 면은 세상살이의 지혜에 대한 인식, 역사를 인정하는 눈, 내세에만 사로잡히지 않고 현세에 눈을 돌린 점, 피동적인 삶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으로의 전환, 하나님의 특별 은총 뿐 아니라 일반 은총에 대한 인식이라 하겠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은 인간의 지나친 부상, 죄의 개념 약화, 목적보다 중시된 수단 재일주의라 하겠다.

인본주의가 휩쓸어 신앙이 사멸되어 가는 듯한 르네상스 시대에도 하나님은 신앙의 불꽃을 끄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몸단 교회를 지탱하셨다. ㄴ

대적할 자가 없는 만유의 대왕 메시아

시편 2 편 1 - 12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
다 하시리로다』(시 2 : 6)



김 창 인

(원로목사)

본 장은 맨 처음에 「어찌하여」 즉 ‘기가 막히는구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저자는 세상의 여러 나라가 너무 어리석은 일을 한다고 탄식하십니다. ‘복받을 일이 많고 많은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어찌하여」 열방이 어리석게도 망할 일만 골라서 하는가」라고 탄식하십니다.

그러면, 열방이 행하는 어리석은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열방이 분노하며...』(시 2 : 1) 여러 나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손에 지음을 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므로 복을 받는 것이 옳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찌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분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미혹에 넘어 갔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헛된 일들을 행합니다.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시 2 : 1) 「허사」란 헛된 일을 뜻하는데 세 가지 허사가 있습니다.

첫째, 뿌리없는 나무에서 열매를 딸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둘째, 영육에 유익이 없는 일은 헛된 일입니다.

세째, 자타가 손해될 일은 헛된 일입니다.

어찌하여 여러 나라가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그러면, 헛된 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시 2 : 2)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고 밤새껏 서로 의논하여 짜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예수님을 대적하자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말에 '순천자는 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살되 '역천자는 망이니라'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는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망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둘째, 메시아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도다』(시 2 : 3) 「맨 것」이란 메시아의 법칙을 깨뜨리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침이면 태양이 떠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자연법칙입니다. 그런데 개가 천 마리아 모여서 짖는다고 떠 오르던 태양이 갑자기 나서 머뭇거리겠습니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절의 법칙인데 이것을 누가 바꾸어 놓겠습니까? “겨울아, 오지 마라” 하고 고함을 지른다고 겨울이 오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법칙을 감히 거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을 이용하여 복되게 살라고는 하였으나 자연을 명령할 권리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태양아 뜨지 마라. 물결아 날뛰지 마라” 홍수가 날 때에 “비야 멎어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연을 향하여 명령할 권세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연에 대한 명령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다만 인간은 물이나 태양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바로 이용하여 유익을 얻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메시아의 법칙을 벗어나서 자유하다고 합니다. “주일을 지키고, 십일조를 바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태서 좀 자유해 보자”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공기를 마시는 인생이 하나님의 명령이 미치지 않는 곳에 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인

간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감당해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유한다는 말은 방종이요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보시고 “너무 어리석구나” 열방의 어리석음을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메시아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선언하셨으므로 죄인은 메시아 예수님과 하루속히 화목해야 합니다(시 2 : 10-12).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가장 고마우신 구주이시고 무서우신 심판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생각하면 안심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되고, 하나님은 심판주라고 생각할 때에 떨며 조심하여 섬기게 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시 2 : 12)는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는 뜻입니다. 감사하므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회개하므로 하나가 되고, 순종하므로 하나가 되고, 인내로 충성하므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주의 대왕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인간이 잘하고 잘못된 행위를 살살이 살피시어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를,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복을 주시지만 교만하여 끝까지 반역하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하여 고집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길에서 망하리니」 세상을 떠나기 전에 땅에서부터 지옥불이 가슴에 붙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메시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면 길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길에서부터 즉 세상에서부터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세상에서부터 천국생활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 경

이 성 군

(목사·교구담당)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필요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성경은 크게 신약과 구약으로 나뉩니다. 구약은 유대 민족의 역사와 율법과 시가와 예언 등으로 39권이고, 신약은 복음서와 제자들의 행적인 사도행전과 사도들의 서신과 계시록으로 27권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전서는 66권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읽는 자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바로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순서는 먼저 신약의 사복음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복음은 네 제자가 예수님의 언행을 기록한 것으로 마치 한 물건을 네 방향에서 보듯이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자들의 행적인 사도행전과 저들의 서신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순서로 신약을 보고 나서 구약을 읽는 것입니다.

구약은 창세기로부터 읽기를 시작하여 역사서와 시가서, 예언서를 차례로 읽어 나가면 됩니다.

성경의 기록된 순서를 말하면 구약이 먼저이고 신약은 그 다음이지만 신약은 그 실체이고 구약은 그림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실체인 신약을 먼저 읽고 나서 그림자인 구약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합니까?

성경은 알지 못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일반

서적과 같이 한 번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는 책은 아니지만 알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알기 쉬운 부분을 여러 번 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성경의 깊은 진리가 점점 깨달아져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신령한 양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알기 어려운 곳은 잠깐 덮어 두고 먼저 쉬운 부분을 여러 번 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성경의 깊은 진리가 점점 깨달아져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신령한 양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알기 어려운 곳은 잠깐 덮어 두고 먼저 쉬운 부분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먹을 때에 먼저 살을 먹고 그 후에 뼈와 대가리 사이의 살을 빼 먹듯이 성경도 주석을 보고야 알만한 부분은 후에 공부하여도 좋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성경학자가 되려는 것은 아니고 영혼의 양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식물을 주신 것은 연구하는 것 이전에 영양을 섭취하여 생명을 윤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시장에 채소와 생선을 진열해 놓은 것은 학자들의 연구 재료를 사 가라고 하기 이전에 일반인들의 식품으로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 문학과 철학을 연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양식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하여 많이 알게 되었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면 아직 성경의 참 맛을 모르는 불쌍한 자입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믿는다면 하루에 세 끼 밥을 먹듯이 성경도 하루



에 석 장을 보아야 합니다.

매일 밥을 먹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여 시간이 있을 때에 4, 5 일분을 한꺼번에 먹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때를 따라 하루에 세 끼 밥을 먹듯이 성경을 날마다 읽어서 영혼에 양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을 본다면 260일 동안 곧 8개월 20일이면 신구약을 한 번 보게 됩니다.

대개 성경 1 장을 보면 시간은 5분 정도 걸립니다. 아무리 분주한 사람이라도 하루에 5분을 내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식후에 잠지 보던지 아침에 5분 일찍 일어나던지 침상에 눕기 전에 5분을 내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든지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이가 담배갑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처럼 신자는 항상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저들은 다른 것은 못 가지고 다녀도 담배는 꼭 가지고 다닙니다. 저들이 담배갑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조금이라도 괴로운 일로 생각하지 않듯이 신자는 휴대용 성경을 마련하여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자들을 보면 아침에 깨어서 한 대, 식후에 한 대, 밖에 나가서 한 대, 출근해서 한 대, 쉬면서 한 대... 이렇게 기회만 있으면 담배를 피우는데 그 시간이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신자가 기회를 얻는대로 성경을 본다면 하루에 성경을 여러 장 볼 수 있고 아무리 보지 못해도 1년에 신구약 성경 한 번은 볼 것입니다.

신자는 성경과 일반 서적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읽어야 합니까? 지금 시중에 일반 서적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신문과 잡지도 그 수가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서적들이 출판되어 나올 것입니다. 신자는

이런 책들 때문에 성경을 볼 시간을 잃고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도 많아서 그것들을 보기 위하여 성경을 보는데 게으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밥을 대신할 수 없듯이 기독교 서적은 성경의 참고서로 보는 것은 좋으나 성경을 대신하여 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양서를 읽는다는 핑계로 성경보는 시간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더우기 신문, 잡지 등으로 성경을 읽어야 할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신문을 먼저 보지 않으면 세상 일을 알지 못하여 그 날의 일이 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 날의 신령한 싸움에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신문을 보지 못하고 출근할지언정 성경은 반드시 보고 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평생에 볼 책입니다. 세상의 서적은 한 번 읽으면 그 뜻을 대강 알게 되어 두 번 다시 볼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혹 두세 번 볼 가치가 있는 책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책은 그리 흔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보면 볼수록 좋은 뜻이 깨달아지고, 볼수록 그 뜻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평생을 두고 볼 생명의 양식입니다.

세상의 서적은 그릇에 담은 물과 같아서 잠깐 쓰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샘물과 같아서 아무리 퍼써도 다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곧 생명의 영감으로 된 책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평생 읽도록 힘써야 하고 1년에 한 번은 보아야 합니다. 조지 무러는 그의 일생에서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다고 합니다. ㄹ

NMC 하기전도여행을마친 후

박 진 회

(대학부)

할렐루야! /

8월 1일 아침이 왔다. 8월의 열기가 대단했다. 이 열기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려 주는 것인지 따갑기만 했다.

‘주님, 이제 우리는 떠납니다. 이 전도여행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로 인해 우리 자신들이 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마음 속으로 굳게 기도하고 다짐했으나 한편으로는 담담하고 또 한편으로는 초조하면서 오후 2시 부산역에 도착했다.

첫날 병원 전도는 보훈병원이었다. 많은 장기 환자들의 대부분이 6·25 상이군인들이어서 매우 거칠어 예년 전도 때에 애를 많이 먹은 곳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을 했다.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병원문을 두드렸다. 기도와 찬양 그리고 말씀으로 전도했다. 어떤 사람들은 표정이 없었고 어떤 사람은 갈급한 모습을 비치기도 했다. 어떤 환자는 30년이 넘도록 투병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정신과 육체는 아주 지쳐 있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 드렸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이들을 버리지 마세요. 이들 환우들에게 주님이 위안이 되시고 길 되신 주로서 이들을 마음 속에 자리잡아 주세요.’라고. 첫날 병원전도에서

는 별로 뜨거운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어딘가 허전한 마음을 남기면서 지나갔다. 충분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이 안된 것 같아 안타까웠다.

둘째날 새벽 5시 새벽기도회로부터 우리의 일과는 시작되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들을 위해 진정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들의 기도는 간절했다. 고신의료원, 백병원 두곳 다 침대가 700이 넘는다. 우리들의 영과 육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향했다. 고신의료원은 유달리 암환자가 많았다. 그리고 환자들 대부분이 불교신자여서 접근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그들의 거부는 완강한 것이었다. 그들의 벽을 무너뜨리지 못한 나 자신이 부끄럽기만 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한층 한층 찬양과 전도를 하면서 육신의 피로를 많이 느꼈다. 그러나 그에 반비례하여 우리의 주님에 대한 열정은 더욱 뜨거워만 갔다. 예상외로 고신의료원과 백병원에서 많은 결신 환자들이 나왔다. 정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에 대한 나

의 생활이 병들어 누워있는 환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3일이 지나고 4일째 되는 날 축호전도가 있었다. 우리들 NMC는 병원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팀이어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전도하는 축호전도에는 익숙치 못하다. 교역자님의 예비지식을 듣고 마음을 굳게 한 후 한집 한집 문을 두드렸다. 그들의 문은 열렸지만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부산은 남쪽 지방으로 더군다나 남부민동은 해안북부 지역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름도 알 수 없는 갖가지 미신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다. '주님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지만 전네 줄 수밖에 없는 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전도지 한장 속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아주 비참한 환자들을 많이 대했다. 얼굴이 부어올라 윤곽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된 사람, 몸이 붙어 피골이 상접된 사람, 다리 없는 사람. 정말 보기에도 끔찍한 환자들이었다. 또 한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아주 지식이 많은 분 같았다. '할아버지 여기 참 평안을 주고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다가 갔더니 말씀하시길 '나는 나 자신 외에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자기 주관만 뚜렷해 보였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을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신 영생과 천국이 있고 주님이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세상을 살아 나가는 사람을 보니 그의 영혼이 불쌍했다. 여러번 권해 보았지만 막무가내였다. 문밖을 나와 기도했다. '주님 저분의 마음 속에 들어가셔서 그 마음을 감화시켜 주세요. 주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세상에 이같은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를 더욱 절실히 느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는 깊어만 갔다. 금요일 오후 2시 우리는 마산 결핵원에 도착했다. 이곳은 결

핵에 걸린 환자들 중 약간 또는 아주 심한 환자들이 요양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어진 곳이다. 우리는 전도하기 앞서 찬양예배를 갖기로 하고 환자들을 불러 모았다. 우리의 육신은 아주 지쳐 있었다. 하루에 많 이 자면 3시간 게다가 정신적 피로까지 겹쳐 탈진 상태에 빠진 일행도 있었다. 그럴수록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하며 이겨 나갈 것을 다짐했다.

찬양예배 중 '손'이라는 mime 순서가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도울 수 있는 손 등 여러가지 아름다운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 손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고 손가락질 하면서 '주님 거기 머 무십시오'라고 외쳤다. 그러나 주님은 상처입은 손을 내미시면서 아직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니 내게로 돌아 오라고 부르시며 그 선택은 세상 사람들 각자의 손에 달렸다는 내용이다.

나는 마음의 하나님역을 맡았다. 그 역을 맡기 전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자격이 있는가? 여러 번 생각해 보았다. 먼저 두려웠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가. 두려운 마음과 떨림으로 임했다. 연기하는 도중 나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빗방울처럼 쏟아졌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등지고 멸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은 것 같다. 주님께 감사드렸다.

이 결핵원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셨다.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환자실과 별관등 여러 곳에 주님의 말씀과 찬양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감격의 눈물이 쏟아졌다. 정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는 힘이 저절로났다.

여정 중 마지막 날은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신 날이었다. 이 날 전도를 마치고 토요일 오후 5시 차로 서울역에 도착했다. 우리는 서로를 다짐했다. '여기서 받은 은혜가 끊이지 않고 서울에서도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은혜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딸의 사역지 마사이랜드를 다녀와서

김 정 화
(권사)

광활한 광야를 힘차게 달려간다. 끝 없는 광야, 가시 나무들이 영성하게 드문 드문 자랄 뿐이다. 이 곳에는 멋도 아름다움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득히 지평선이 보일 뿐이다. 때때로 기린 가족들이 길가까지 나들이를 나오고 영양들이 떼지어 노닐기도 한다. 타조들이 쫓는 사람도 없는데 바쁘게 비껴간다. 목동들이 한가롭게 소떼와 양떼, 염소떼들에게 풀을 뜯기면서 지나가는 자들을 향하여 손을 흔든다. 이윽고 우리들이 (한성수 목사, 정현숙 선교사, 전미령 선교사, 에반스, 한경애 과장, Miss 박, 나) 탄 차는 비포장 도로로 접어든다. 산이 가까와 짐에 따라 가시나무들이 총총해지고 나무들도 크게 자라고 있다. 이 곳에는 개미집들이 사람의 키만큼 높은 것들이 허다하다. 선인장의 날카로운 가시 사이에 예쁜 꽃들이 촘촘히 수줍게 피어 있다. 울퉁불퉁한 길을 조심조심 전진하여 우리의 사역지 풀롱마을에 당도하니 우리의 현지인 동역자들이 달려나와 반겨 주었다. 이미 해가 저물었기 때문에 차에서 짐을 내리고 천막을 치고 하룻밤을 유숙하고 이튿날 아침 차에 천막을 견어서 싣고 동역자들도 함께 출발하였다. 여기서부터는 깊은 산길이다. 산이 깊어질수록 가시나무들이 울창하고 길도 없다. 이곳 주민들이 군데군데 나무 꺾질을 벗겨서 자기네 마을에 찾아 오도록 표시를 해 두었다. 우리의 차는 무거운 짐을 가득 실었는데 일행이 먹는 물과 식량, 천막 4개, 의약품, 침구들, 의자와 강대상을 팔 목재와 큰 못 등이었다. 험준한 산길을 가시나무들을 헤치면서 나아가니 나무가지들이 차창을 때린다. 지금 전기로 인해서 물이 말라 있는 강을 건너니 높은 언덕에 가시나무 정글이 하늘을 뒤덮고 있다. 이렇게 위태로운 길들을 뚫어도 우리 선교사님들은 다니고 있다. 사실 이 마을에 들어오기 까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고 한다. 이곳 엔코라레 마을 사람들은 우리 선교사들에게 자기네 마을에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워 주기를 요청했다고 한다. 우리 선교사들은 저들의 부탁을 듣고 이 마을에 들어오려고 했었

으나 너무나 험한 곳이고 길도 없어서 여러 차례 들어 오다가 되돌아가곤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과 이 곳의 영혼들을 생각할 때 저들은 주지할 수가 없어 다시 힘을 내서 마침내 이 마을에 들어오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엔코라레 마을에 들어와 보니 양철로 지어진 교회 건물이 아담하게 서 있었다. 우리 선교사들의 노고에 가슴이 뭉클해진다. 신고온 짐을 풀고 우리가 유숙할 천막을 치고 이 곳까지 운반해 온 재목들을 톱으로 자르고 큰 못을 박아 의자와 강대상을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오고 서로들 인사를 나누며 반겼다. 이곳 사람들은 “카르고”를 좋아한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미령 선교사를 보고 “카르고, 카르고” 하면서 불려 낸다. 의자와 강대상이 완성된 후 밤에는 “천로역정” 영화를 상영했다. 영국에서 제작한 필름인데 색상이 곱고 경치가 아름다웠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와서 대 성황을 이루었다. 우리의 통역자 줄리엣이 마을 사람들에게 해설을 해 주었다. 낮에는 따갑더니 저녁이 되니까 바람이 불어오면서 추워지기 시작한다. 밤이 되니 기온이 더욱 내려가는 모양이다. 파카를 입고 모닥불 앞에서 몸을 녹인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한 말이 생각난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창31:40) 과연 광야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곳이었다. 천막 안에 들어가 파카와 겨울 바지를 입은 채 Sleeping Bag에 들어가 잠을 잤는데도 추위 때문에 몸이 오그라든다. 여러 종류의 새들이 아침을 알리는 소리에 잠을 깰다. 멧 없는 당나귀들의 울음 소리, 멀리 소방울 소리, 새들의 지칠줄 모르고 재잘대는 소리들로 엔코라레 마을의 아침은 부산스럽다. 교회 안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었다. 오늘은 새로 교회를 짓고 첫번째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다. 감격과 함께 선교사들의 고생하는 모습들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쏟으며 이곳 엔코라레 마을과 우리 선교사들이 돌아보는 마을들이 다 복음화 되도록,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의 평안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 햇살

이 퍼지니까 어린 소년 목동들이 소떼를 몰고 들로나간다. 물이 없는 이 곳에서는 여인들이 20키로미터나 30키로미터 먼 곳에 가서 물을 저 나른다. 그 혼한 소나당나귀를 이용하면 좋으련만 아직도 원시적인 생활 방법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선교사들이 할 일은 태산같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고 교회를 세워줘야 할 뿐만 아니라 병을 고쳐 줘야 하고 생활 방법도 가르쳐 줘야 하며 학교도 세워줘야 한다. 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동차 클락손으로 뽕뽕하고 알린다. 추장은 양복을 입고(비록 와이셔츠는 목이 다 떨어졌지만) 여인들은 주렁주렁 장식을 하고 교회로 모여든다. 아이들에게는 파리가 수십 마리씩 붙어 있다. 눈, 코, 입, 머리에 이렇게 많은 파리가 있어도 별로 쫓으려고 하지 않는다. 쫓지 못하고 사는 이곳 사람들에게서 심한 냄새가 나 역겹다. 예배가 시작되고 한성수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를 하시고 현지인 동역자가 통역을 하였다. 예배를 드리는 이곳 마을 사람들은 즐거워 보이며 또한 찬송을 부를 때도 열정적이다. 예배 후에는 진료가 있었다. 귀에 파리가 들어가 죽어서 귀병이 생긴 어린 애기도 있다. 대부분 어린 아이들은 아픈 모양이다. 울고 보챈다. 애기 엄마들이 많이 몰려왔다. 진료를 마친 후에 마을 사람들이 차와 음식을 준비해왔다. 우리 선교사들은 익숙하게 이들과 같이 손가락으로 식사를 잘 한다. 모든 일을 마치고 다시 짐을 챙겨서 차에 싣고 우리일행은 엔코라레 마을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서 불렀던 찬송가를 손뼉을 치면서 부르며 떠나는 우리들을 전송해 주었다. 오지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풀롱 마을에 다시 들렀다. 이 곳에 두고 갈 짐들을 내려놓고 나이로비에 있는 우리 선교센타로 가기 위해 길을 재촉한다.

곱게 저녁놀이 물든 마사이의 하늘은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새들은 깃을 찾아 날아들고 평화롭게 어둠이 마사이를 감싸고 있다. 샬롬, 마사이어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ㄹ

샬롬 경로대학 입학에 붙여서

서산에 해는 지어가는데 갈 길은 멀어
갈 길을 비추어주는 마음의 등불이 그리워
빛을 찾아 헤매이다가 나는 찾았네.

영혼의 안식을 주는 충현 샬롬 경로대학을
외로운 인생길을 홀로 거닐던 백발의 길손들이여
이제 샬롬 경로대학의 학우되어서
손에 손잡고 희망의 나라로 달려가 보세
그대 학우들이여!

지나온 인생길을 뒤돌아볼 때
일장춘몽과 같은 허무함도 있으리 공허함도 있으리
시간은 한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것
지난날에 연연한들 그 무엇하리요
이제 우리 빛되신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의 품안에서 안식을 얻어
지치고 지친영혼에 새힘을 얻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힘차게 전진하여라
그대들의 앞길에는 영생이 있음을 믿고

88. 9. 25 추석날에

고성(孤星) 박 관 영

(장로, 감사위원)

「믿음(FAITH)이란 무엇인가?」

이 양 우

(목사·10교구담임 전도위지도)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 회심(Conversion)을 통해 하나님께로 180도 방향 전환을 하여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기독교(그리스도인)들 앞에 많은 시험과 시련이 닥쳐온다. 그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 이를 극복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굳건하게 성장하게 된다.

(1) 믿음(FAITH)이란 무엇인가?

①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엡 2 : 8).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감사할 뿐이다.

②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히11 : 1). 믿음이란 미래의 현재화요 과거의 현재화이다.

③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다(시118 : 8 - 9).

④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다스려 주시는 것이다(갈 2 : 20).

⑤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이다(롬10 : 9 - 10).

(2)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① 쉬임 없는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살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이다(빌 4 : 6 - 7).

②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 영혼이 영양 공급을 받게 되며 날마다 새 힘을 얻는 것이다(시119 : 97 - 100).

③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음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다(행16 : 29 - 34).

④ 예수님께서 명하신 사랑과 봉사의 실천을 통하여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약 2 : 26, 행10 : 1 - 4). **▲**

오늘을 위한 십계명

장 혜 순

(전도사·13교구·직전부 부지도)



윌리엄 바클레이 저, 이혜순 역, 키클디아사, 242P, 값 3,500원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으로 애굽에서 이방나라 풍습에 섞여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여 살게 하시려고 주신 기독교 윤리체계의 기초이다. 현대에 있어서 기독교 윤리는 공격을 받고 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자유의 이름으로 도덕적 혼란을 불쾌하게 생각하며 무엇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 그리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인한 혼란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한 개념이 흔들리고 핵가족 시대의 부모님 공경문제 성적 타락으로 인한 가정의 흔들림과 미혼 남녀간의 성적 방종등은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게 된다. 본서는 각 계명의 전통적 의미와 문제들을 현실 감각에 맞게 해설해 놓은 것으로, 우리가 십계명의 요구에 직면하여 신앙의 바른 윤리관을 확립하여 참된 삶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각성케 해주는 지침서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추천한다. **▲**

교회소식



■ 연신원 목회자 신학 세미나

지난 6월 27일(월)부터 7월 8일(금)까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주최하는 제 8회 연신원 목회자 세미나가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있었다.

둘째날 본 교회 이종운 위임목사님은 「교회 형성과 성장의 목회신학적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셨다.

■ '88 올림픽 전도대회

지난 6월 27일(월) 오후 7시 잠실체육관에서는 세계복음화대성회 올림픽 전도단 주최로 '88올림픽 전도대회가 있었다.

이 대회의 강사로 초빙된 본 교회 김창인 원로목사님은 벨후 3:8~10절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으며 본 교회 성도 2,000여명과 전국에서 모인 성도로 체육관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서울올림픽의 성공 및 올림픽 전도의 성공을 위하여, 우리의 자매 결연국인 방글라데시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 부흥회

지난 7월 4일(월)부터 8일(금)까

지 사랑의 교회(충남·서산)창립 부흥회가 있었다.

둘째날 강사이신 본 교회 김창인 원로목사님은 살전 3:1~13의 본문을 가지고 '사랑의 교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다.

또한 7월 6일(수) 만리포 해변기도원 개원예배에서는 약 4:1~10절의 본문을 가지고 '변화받는 기도원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다.

■ 국제선교대회

'88세계복음화 국제선교대회가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본 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케냐 등의 대표 및 올림픽 참가 선수, 관계자 외국인, 국내 교역자 및 평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치루어졌다.

이번 대회는 '88성회의 마무리 행사로 민족복음화를 세계복음화로 확산, 열기를 지속시킨다는 목적으로 열린 것이다.

「Soulympic(영의 올림픽)」이라는 타이틀로 준비된 이번 집회는 '88올림픽 기간 중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것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로 동시통역을

하였으며 외국 대표들을 위해 여전도회관과 백주년기념관에 숙소를 마련하여 숙식을 제공했다.

동 대회는 오진집회, 저녁집회, 철야 집회로 하루 세차례씩 진행되었으며 개회예배 설교는 이종운 목사님과 신현균 목사가 맡았고 폐회예배는 김창인목사님이 담당했다.

그외 강사로는 오관석, 이호문, 구본홍, 이태희, 김인호, 김규상, 장광영, 이광훈, 조종남목사이며, 국제CCC 창설위원 보넬브라이언사와 세계 여성지도자 조이더슨여사도 오진 강사로 수고했다.

첫날 신현균목사는 「육체의 제전인 올림픽도 물론 성공적으로 치루어져야 하겠지만 이번 올림픽을 한차원 더높은 영의 올림픽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모여오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복음 한국의 이미지를 심어주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의 오순절적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범국민적 회개운동을 일으켜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세계선교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성수, 김민식, 그레이스 여성중창단, 마라나타 수화팀, 선명회 어린이합창단, 송의 울동팀, 엘칸토 예술중창단, 빛 선교단, 크로스 찬양선교단이 특별 순서를 맡았다.

■ 88년도 제4차 섬례식

1년에 4차례 실시해오던 세례식이 7월부터 매월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어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 18일 - 19일, 8월 22일 - 23일, 9월 26일 - 27일에 세례식(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 개종) 문답이 각각 있었고 7월 20일, 8월 24일, 9월 28일에 학습, 세례식이 각각 있었다.

세번에 걸친 세례식 문답자 수는 학

습 71명, 세례 90명, 유아세례 20명, 입교 8명, 개종 1명 등 총 190명이다. 한편 성찬식은 10월 9일(주일) 4부에 걸쳐 진행되었고 수찬자 수는 6,742명이었다.

■ 본당 각 방과 찬양대의 명칭 변경
그동안 임시로 불리어졌던 본당내의 각 방과 각 찬양대의 명칭이 다음과 같이 새롭게 변경되었다.

1. 본당 각 방의 명칭

- 본당은 본당
- 중예배실은 갈릴리 홀
- 찬양대실은 나사렛 홀
- 새신자부실은 베다니 홀
- 다용도실은 베들레헬 홀
- 장로회실은 제 1다락방
- 안수집사실은 제 2다락방
- 권사실은 제 3다락방
- 예배준비실은 예배준비실

2. 본당 지하 1층의 명칭

- 찬양대실은 할렐루야 홀
- 호산나 홀
- 임마누엘 홀
- 기도실은 아멘 홀
- 다용도실은 벨렐 홀

3. 각 찬양대의 명칭

- 제 1부찬양대는 가브리엘 찬양대
- 제 2부찬양대는 임마누엘 찬양대
- 제 3부찬양대는 할렐루야 찬양대
- 제 4부찬양대는 아멘 찬양대
- 제 5부찬양대는 시온 찬양대
- 여성찬양대는 호산나 찬양대
- 선교찬양대는 실로암 찬양대

■ 교역자 사무실 선교관 일층으로

지금까지 교육관 일층에 교구별로 나누어져 있던 교역자 사무실이 선교관 일층 영아부실과 새가정부실로 이전되었다. 그리고 영아부는 교육관 일층 109호로, 새가정부는 교육관 201호로 이전되었다.

또 교육위원회 사무실이 교육관 103호, 에바다 사무실이 교육관 104호, 사랑부와 경로대학 사무실이 교육관 105호실로 이전되었다.

■ 고 강지순장로 소천

본 교회 공로장로로 수고하시던 고 강지순장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난 10월 6일(목) 소천하셨다.

고 강지순장로는 1954년 충현교회 제 1대 시무장로로 장립하여 헌신과 봉사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1963년 3월 공로장로로 추대를 받았다.

교회는 고 강지순장로의 장례를 교회장으로 결정하고 지난 10월 8일(토) 본당 앞에서 많은 조객이 참석한 가운데 고 강지순장로의 교회장을 치렀다.

■ '음악 감독' 최시원교수 초빙 및 이성근, 유국남목사 사임

본 교회는 최시원교수(음악교육학 박사)를 찬양 감독으로 초빙하였다.

최교수는 가장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섬기는 일은 온 정성을 쏟으 시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1교구 담당목사이신 이성근목사와 3교구 담당목사이신 유국남목사가 사임하셨다.

교회는 지난 10월 17일(월)교역자들과 몇 분의 장로를 모시고 최시원교수를 환영하면서 두 분의 사임을 아쉬워하는 위로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성근목사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교구위원회 지도에는 이세열목사가 선임되었다.

■ 소록도 하모니카 연주단 초청

고난과 절망의 상징인 나병환자(음성)들로 구성된 하모니카 합주단이 본 교회를 방문하여 참담한, 절망의 밑 바닥

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모니카로 노래하는 귀한 시간을 지난 10월 16일(주일) 저녁예배시에 가졌다.

이들은 모두가 나병으로 설명한 자로서 맑은 영혼, 참된 소망과 기쁨을 누리므로 밝은 눈을 가진 건강한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였다.

본 교회 여전도회에서는 의류를, 교회에서는 금일봉(200만원)을 드렸다.

■ 성경연구원 합동 수료식

지난 7월 3일(주일) 찬양예배시에 제28기 교사 양성부, 제 1기 찬양대원 양성부, 전교인 성경공부반의 합동수료식이 본당에서 있었다.

이번에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는 교사 양성부 63명, 찬양대원 양성부 142명, 전교인 성경공부반 99명 등 총 304명이다.

■ 크로스웨이 성경연구 수료식

지난 7월 24일(주일) 저녁 찬양예배시 크로스웨이 성경연구 1-1 과정(구약 주제별연구)과 2-1 과정(창세기-열왕기연구)의 수료식이 있었다.

크로스웨이 성경연구는 시청각교재(오버헤드 프로젝트, 천연색 슬라이드)를 사용하여 방대하고 난해한 성경을 체계적으로 알기쉽게 공부하는 성경공부 프로그램이다.

이날 수료자 수는 1-1 과정 28명, 2-1 과정 22명 총 50명이다.

■ 성경연구원 제2 학기 개강

지난 9월 5일(월)오후 6시 베다니홀에서 충현성경연구원 제 2학기 개강예배가 있었다.

각 반별 등록자 수는 다음과 같다.

주간 성경공부 : 176명
찬양대원 양성부 : 56명
교사 양성부 : 57명

성교사 계속교육: 18명
구역일군 실무교육: 130명

■ 교구위원회 총회 및 14개 교구로 확장

지난 8월 19일(화)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교구위원회 총회가 1부 예배(설교: 이종운 위임목사님)와 2부 교구 총회로 진행되었다.

이날 현재의 10개 교구를 14개 교구로 확장 각 교구 교역자와 지역장 및 교구일군 소개의 시간이 있었다. 14개 교구 교역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 | |
|-------|-------|--------|
| 1 교구 | 목사 | 장영자전도사 |
| 2 교구 | 김학진목사 | 김연이전도사 |
| 3 교구 | 목사 | 구명신전도사 |
| 4 교구 | 김준태목사 | 임태주전도사 |
| 5 교구 | 김장근목사 | 정복인전도사 |
| 6 교구 | 김영구목사 | 김정순전도사 |
| 7 교구 | 이원길목사 | 유순화전도사 |
| 8 교구 | 김동열목사 | 김경성전도사 |
| 9 교구 | 이새열목사 | 정연희전도사 |
| 10 교구 | 이양우목사 | 김정자전도사 |
| 11 교구 | 김익경목사 | 최명자전도사 |
| 12 교구 | 김성윤목사 | 최순복전도사 |
| 13 교구 | 윤용규목사 | 장혜순전도사 |
| 14 교구 | 남창우목사 | 현정남전도사 |

■ 88년도 하반기 장학금 지급

장학위원회는 88년도 하반기 장학금을 지급했다. 지급을 받은 학생수는 108명으로 다음과 같다.

- 총신신학원 장학생(규정 12조 1항 2호) 6명
일반대학과정 장학생(규정 12조 1항 3호) 15명
주말학교 모범 장학생(규정 12조 1항 4호) 42명
해외 유학 장학생(규정 12조 2항) 5명
교역자, 직원자녀 장학생(규정 12조 1항 1호) 45명

■ 헵시바 찬양팀 발족

대학부와 청년부 회원 30 여명으로 구성된 헵시바 찬양팀이 발족되었다.

이 찬양팀은 매주 금요일과 주일 저녁 예배전까지 찬양과 율동으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며 '헵시바'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사62: 4)란 뜻이다.

■ 무지개회 조직

지난 7월 13일 오후 1시 배다니홀(새신자부설)에서 본 교회 장로 부인들의 모임인 무지개회가 조직되었다.

회원 56명이 참석하여 먼저 드린 예배에서 이종운 위임목사님은 살전 5: 16~18절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으며 이날 조직된 무지개회는 앞으로 교회의 봉사의 일을 하게 된다.

■ 제2남전도회 특강

제2남전도회에서는 지난 6월 19일(주일) 오후 2시 30분 선교관 501호실에서 이병학장로(서양화 화백)를 모시고 '신앙과 미술'이란 주제의 특강이 있었다. 또한 6월 30일(화) 오후 8시 30분에 배다니 홀(새신자부설)에서 전성자집사(한국 소비자연맹 교육원 원장)를 모시고 '기독교인의 소비생활'에 대한 강의를 가졌다.

■ 한나·에스터 3지회 특강

지난 7월 5일(화) 오전 10시에 배다니 홀(새신자부설)에서 한나·에스터 3지회 주회로 박세홍목사(동양교회)를 모시고 '크리스찬의 가정교육'이란 제목으로 특강이 있었다.

■ 찬양대 가운 500벌 기증

한나·에스터 연합회에서는 흥해작전계간 매달 새벽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연합찬양대에 가운 500벌을 기증하였다.

■ 강남구청 청소원 위로

지난 10월 7일(금) 저녁 구세위원회에서는 강남구청 소속 청소원들을 본 교회로 초청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이종운 위임목사님의 위로의 말씀, 강남구청 시설국장의 답사로 진행되었으며 245명의 청소원들이 참석하였다.

본 교회에서는 이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드리고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졌다.

■ 방글라데시 구제품 전달

본 교회에서는 기아에 허덕이며 죽어가고 있는 방글라데시 국민들을 돕고자 지난 10월 17일(월) 치과 의료기구 일체의 장비와 3만달러 상당의 의약품들을 대사관을 통하여 전달하고 탁송비용 일체도 본 교회에서 부담하였다.

■ 서초 꽃마을 위문품 전달

지난 10월 9일(주일) 화재로 인하여 2,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서초 꽃마을에 본 교회에서는 모포 600매, 의류 1,500점, 어불 10점을 지난 10월 16일(화) 서초구청에 전달하여 이웃사랑의 모범을 보였다.

아울러 의류와 기타 위문품을 수집하는데 신속하게 동참해 주신 성도의 발걸음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 매현교회 지원

본 교회 여전도회가 개척하여 자립한 매현교회(충북 단양)가 수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와전도회 연합회에서는 긴급으로

의류와 수해의연금금을 모금하여 지난 7월 28일(목)에 임원들이 탐방 위로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 지원교회 성경 전달

에스더 4 지회에서는 지난 8월 4일(목) 지원교회인 도진교회(강원도 정선: 김항성목사)의 주일학교 부흥과 교육을 위하여 성경 20권을 구입하여 전달하였다.

■ 소년 여름성경학교

춘천소년원에서는 8월 8일(월)부터 12일(금)까지 '좋은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가 실시되었는데 본 교회 한나 여전도회 6 지회에서는 30만원을 보조하고 격려하였다.

■ 전도특강 실시

제3 남전도회에서는 지난 8월 21일(주일) 월례회서 박문환 C·C·C 관사를 강사로 모시고 선 401호에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도를 위한 특강을 실시하였다.

■ 건축현장 인부 위로

남전도회 연합회에서는 지난 8월 25일(목)에 성진 신축공사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일꾼들에게 본 교회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 본당에 성경 찬송가 비치

한나·에스더 여전도회에서는 성경(50권), 영한찬송가(100권)를 준비하여 본당 안내석에 비치하여 예배시 성경, 찬송가를 가지고 오지 못한 분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경비 경찰 위로

여전도회 연합회에서는 '88서울올림픽을 맞이하여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는 경비 경찰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지난 9월 7일(수) 위문금을 전달하였다.

■ 남·여전도회 개편

본 교회에서는 남·여전도회의 활성화와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남·여전도회를 각 교구마다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남전도회 28개와 2개의 협의회, 여전도회 42지회와 3개의 협의회를 조직하였다.

개편된 남·여전도회의 연령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남전도회
각 교구마다 2개의 남전도회로 조직
(1) 디모데 전도회: 50세이하
(2) 바울 전도회: 51세이상
2. 여전도회
각 교구마다 3개의 여전도회로 조직
(1) 마리아 전도회: 40세이하
(2) 에스더 전도회: 41세~55세
(3) 한나 전도회: 56세이상

■ 남·여전도회 독립

전도위원회 산하에 속해 있던 남·여전도회가 독립하여 두 분의 지도 교역자님과 두 분의 고문 장로님을 모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였다.

- 남전도회 지도: 이원길목사
여전도회 지도: 최순복 전도사
남전도회 고문: 김원선장로
여전도회 고문: 정하우장로

■ 임관식 선물전달

전도위원회에서는 본 교단에서 임관하는 군목 다섯 분에게 김창인 원로

목사님의 저서 '예식과 설교' 1 권씩을 전달하였다.

■ 전도비 지원

제3 남전도회에서는 본 교회 청년부에 월 50,000원씩의 전도비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청년부에서는 노방전도 지역을 확대하여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이태원 소방서 앞에서 내·외국인을 상대로 전도 활동을 펴고 있다.

■ 육군부대 비품 전달

한나 여전도회(2·10)에서는 육군○○부대 예배실의 비품 구입을 위하여 20만원을 지원하였다.

■ 지교회 교역자 이동

본 교회의 지교회인 서현교회(강원도 인제)의 오창남목사가 사임하고 감창길전도사가 부임하였다. 또한 지원 지회인 제2 남전도회에서는 교역자 부임시 이사 비용을 전달하였다.

■ 밀알선교회 지원 및 장학금 전달

심신장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도우는데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가득히 소망하면서 설립된 밀알선교회가 본 교회로 이사해왔다.

전도, 봉사, 계몽, 조기교실 운영, 지방활동의 다섯부문의 활동을 하고있는 밀알선교회의 사무실은 선교관 207호, 장애아동 조기교실은 소석관 107호이다.

본 교회에서는 밀알선교회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그레이스 봉고(12인승) 1대를 기증하였고 밀알선교회 명예단장이재서씨에게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하였다.

선교지 소식



1. 아주 선교국

○인도네시아(서만수 선교사)

하나님께서 오지 사역을 위해 새로운 한해를 열어 주신 가운데 지난 1/4분기는 기독교 대학에서 1,700여명의 학생이, 기독교 사범대학에서는 70여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56개의 오지 개척지에서는 장년 61명과 어린이 9명이 결신하였고 39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음을 감사 드린다.

또한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 선교부의 기구를 4개의 부서로 개편, 증설하였다. 오지 선교부에서는 오지 개척사업, 동역자 통신 및 중계를 하며 해양 선교부에서는 선원 및 여객 선교, 선원의 집을 운영하고 교육 선교부에서는 인도네시아 기독교 대학교 운영, 기독교 사범대학 운영, 장학회(4개 신학교 및 대학)를 조직 현재 3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한인 선교부에서는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주간학교, 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할렐루야 유아원, 할렐루야 골프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윤태곤 선교사)

87년 12월 2일 인도네시아 입국 비자를 받고 12월

8일 자카르타를 출발하여 12월 10일 선교지 이리안 자야 확확에 도착하여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GPI교단 산하의 노회 지역을 돌아보며 지도자들을 재 교육시키며 지원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일본(유병세 선교사)

13년동안 봉직하시며 선교사역을 감당했던 북해도 도립진료소장직을 정년 퇴임하시어 새로운 선교지를 모색하던중 야기시리도 도립진료소 소장으로 다시금 선교 사역하게 되었다.

주일예배를 오전 10시에 선교사 내외가 드리며 교회 설립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진료소내에 전도지 비치 및 내·외래환자, 간호원들에게 전도를 하고있다.

○인도(엘리아겔간 선교사)

자킬 지역의 불교협회가 기독교에 대하여 세가지를 반대하는데 첫째가 불교인에 대한 복음전파, 예수의 삶에 대한 책자 및 불교업무에 대항하는 비평 둘째로 기독교 학교에서 불교 자녀들에 대한 교육 세째가 후에 개종한 불교 소녀와의 결혼 반대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이름이 더욱 값지게 나타나게 되었고 무엇보다 더 교인들의 삶과 입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 증인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2. 중동·아프리카 선교국

○애굽(이준교 선교사)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아랍권에서의 유일한 신학교인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학을 강의하는 가운데 주님의 제자 양성에 힘쓰고 있다.

대림산업 공사현장 교우들을 위한 세례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 기적을 체험했던 홍해에서 기행 하였고 애굽 복음화 위원장 담당 목사를 만나 '88서울 올림픽 진도단 파송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여 선교단 일행 3 명을 파송함.

카이로 한인교회 전제 심방도 실시하였다.

○이스라엘(김주경 선교사)

총회 선교부 주최 선교대회(독일 함부르크)에 참석 및 성지 세미나를 개최(이스라엘)하고 '88한인 세계신 교대회에 참석하여 이스라엘관을 상설관으로 운영코 자 이스라엘 정부와 협력하였고 한남대학교에서 있었던 전남지역 목회자 수련회에서 이스라엘 성지에 대한 특강도 실시하였다.

○케냐(전미령 선교사)

엔코라레라는 새로운 마사이 마을에 계속 머물면서 예배 및 진료를 하고 있으며 교회 건축작업도 실시하고 있다.

플롬바일의 센터는 완성되고 화장실과 창고는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

전미령 선교사의 모친 김정화권사, 환경에간호원 박 예분자매가 현지를 둘러보고 모교회 및 케냐 후원회가 준비한 선물을 전달해왔다.

3. 유럽 선교국

○서독(육호기 선교사)

뮌헨부룩교회는 전례없는 대 부흥의 역사속에 예배실이 모자라 보다 큰 교회를 물색중에 있으며 주일학교도 영어반과 독일어반이 신설되어 교육중에 있다.

제4회 한국 선교사 세계 선교대회가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었는데 본 선교사가 회장으로 책임을 감당하였다.

4. 미주 선교국

○파라과이(김재창 선교사)

원주민 개척교회를 위하여 원주민 교역자 및 신학교 교수들이 모여 연석회의를 열어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또한 한인유치원을 개설하여 원생 56명을 가르치고 있으며 원주민 제3 장로교회에 의료선교 및 전제 원주민 교회 구제선교를 실시하였다.

○칠레(유재일, 한영철 선교사)

산티아고에서 2200킬로미터 떨어진 비냐델말에 기도 처소를 설립하였고 칠레인들과 연합예배를 드려 선교부 장학금 수여식과 아울러 학생용 구제품을 전달하였으며 극빈아동 위로회를 개최하여 극빈아동 100여 명을 초청 한인교회에서 수집한 여학생 코트와 남학생 스웨터 30벌, 의약품, 운동기구, 기구등을 전달하였다. 또한 칠레 성서공회 주관으로 중공성서 제작용지 기금 운동에 \$200을 지원하였으며 에니발 프란시스코 진도사를 본 선교부 전임 교역자로 청빙하였다. 그리고 에니발 프란시스코 전도사가 거주하며 사역하던 곳을 중심으로 에스티시온 센터랄 장로교회를 설립하여 장년 35명이 모인 가운데 창립예배를 드렸다. **▲**

교 우 동 정

새교우

(6월 12일~10월 16일까지)

한남구역 암구정 *	김미현 박찬영	한남구역 봉천구역	김은주 이병근	도곡구역 방배구역	신옥순 최종환	삼성구역 창신구역	서미라 정규영	개포구역 상계구역	이윤진 정의숙
잠실구역 암구정 *	김창미 박 섭	방이구역 암구정 *	이옥희 박찬웅	둔촌구역 봉천구역	안향숙 송순자	역삼구역 상도구역	손갑숙 김익희	신사구역 상계구역	신성균 유은향
신당구역 정담구역	장옥순 최세화	삼전구역 암구정 *	서미경 전영주	명일구역 반포구역	박형민 조숙기	망우구역 방배구역	최영택 오진훈	대치구역 광명구역	이성완 김국영
상계구역 역삼구역	이영재 신재덕	잠실구역 일원구역	서윤숙 심화숙	성내구역 흑석구역	김경애 김동규	명일구역 흑석구역	이미향 장강월	역삼구역 반포구역	고화순 김숙희
수원구역 미금구역	이현국 김윤찬	망원구역 명일구역	임순애 김신라	고양구역 역삼구역	마공주 이은재	파주구역 역삼구역	박수홍 유부용	동소문 *	김영화
흑석구역 창신구역	성기동 오영복	봉천구역 방창구역	이한근 오필희	반포구역 남양주 *	이영식 김영화	양평구역 길동구역	김은숙 노현구	개포구역 망원구역	문근완 박근식
창신구역 반포구역	최간남 송미호	부천구역 송파구역	허경화 강희자	고양구역 명일구역	김익생 마한규	흑석구역 창신구역	김덕호 김순영	명일구역 방학구역	서정식 정지숙
미금구역 잠실구역	조신욱 장남희	송파구역 흑석구역	이경연 김동규	명일구역 자양구역	박창숙 이정숙	창신구역 잠실구역	김승기 김재원	방학구역 필동구역	전희순 신경순
자양구역 삼성구역	김영래 정수경	흑석구역 울지로 *	권정순 전영옥	자양구역 삼성구역	한호숙 조초자	잠실구역 역삼구역	김명찬 이인숙	필동구역 삼성구역	신경순 김성대
삼성구역 상일구역	정성자 이문자	노현구역 잠수구역	박은준 임영순	삼성구역 역삼구역	이영록 이주원	역삼구역 상남구역	윤재욱 김선화	삼성구역 신원구역	김성대 김 진
방배구역 금호구역	박옥례 안선희	반포구역 역삼구역	박종욱 고신욱	역삼구역 노현구역	김주원 정윤정	상남구역 삼성구역	김선화 옥승호	신원구역 잠실구역	김 진 옥승종
금호구역 반포구역	박옥례 안선희	역삼구역 김포구역	박종욱 고신욱	노현구역 가락구역	정윤정 한주희	삼성구역 잠실구역	옥승호 주운애	잠실구역 신림구역	한향순 정명선
반포구역 역삼구역	안선희 권혜진	김포구역 삼성구역	고신욱 옥일식	가락구역 삼성구역	한주희 옥승환	잠실구역 신림구역	주운애 한영호	신림구역 광희구역	정명선 임영자
역삼구역 광명구역	권혜진 김성순	삼성구역 상일구역	옥일식 박덕규	삼성구역 방이구역	옥승환 이근태	신림구역 역삼구역	한영호 이경자	광희구역 봉천구역	임영자 김윤정
광명구역 반포구역	김성순 김효선	상일구역 대치구역	박덕규 이종애	방이구역 노현구역	이근태 문현순	역삼구역 상도구역	이경자 김익희	봉천구역 종암구역	김윤정 박동수
반포구역 면목구역	이은주 오명희	부천구역 잠실구역	이종애 송요진	노현구역 가락구역	문현순 한이순	상도구역 신길구역	김익희 박현수	종암구역 역삼구역	박동수 노정욱
면목구역 양재구역	오명희 천미영	잠실구역 노현구역	송요진 박복례	가락구역 노현구역	한이순 이경희	신길구역 역삼구역	박현수 박수금	역삼구역 상도구역	노정욱 오종우
양재구역 반포구역	천미영 이지연	노현구역 부천구역	박복례 정연태	노현구역 개봉구역	이경희 이준희	역삼구역 상도구역	박수금 진교진	상도구역 신정구역	오종우 안양순
반포구역 면목구역	이지연 한근화	부천구역 잠실구역	정연태 구자삼	개봉구역 송파구역	이준희 이용래	신정구역 역삼구역	김철경 박형수	신정구역 상도구역	안양순 김지훈
면목구역 반포구역	한근화 김인기	잠실구역 노현구역	구자삼 김혜경	송파구역 신사 구역	이용래 변세균	역삼구역 상도구역	박형수 진희정	상도구역 벽제구역	김지훈 정임순
반포구역 명일구역	김인기 이원영	노현구역 부천구역	김혜경 정정교	신사 구역 화곡구역	변세균 윤성미	상도구역 벽제구역	진희정 김남희	벽제구역 역삼구역	정임순 김상훈
명일구역 대치구역	이원영 김수정	부천구역 잠실구역	정정교 이정숙	화곡구역 성수구역	윤성미 이향자	역삼구역 상도구역	김남희 최현숙	역삼구역 상도구역	김상훈 김선희
대치구역 반포구역	김수정 이남선	잠실구역 노현구역	이정숙 이승찬	성수구역 신사 구역	이향자 신성균	상도구역 불광구역	최현숙 진호준	상도구역 불광구역	김선희 곽정화
반포구역 잠실구역	김경숙 조숙호	노현구역 신월구역	이승찬 김지숙	신사 구역 대림구역	신성균 이은주	불광구역 역삼구역	진호준 나태자	불광구역 역삼구역	곽정화 유승만
잠실구역 방배구역	조숙호 이문자	신월구역 잠실구역	김지숙 김창미	대림구역 성남구역	이은주 김은주	역삼구역 잠실구역	나태자 김선자	역삼구역 대치구역	유승만 박균범
방배구역 인현구역	이문자 장명철	잠실구역 영리구역	김창미 임수근	성남구역 청량리 *	김은주 이상호	잠실구역 대치구역	김선자 김윤수	대치구역 용진구역	박균범 윤일아
인현구역 홍은구역	장명철 이진영	영리구역 역삼구역	임수근 오현자	청량리 * 역삼구역	이상호 안만진	대치구역 자양구역	김윤수 김종식	용진구역 반포구역	윤일아 김경수
홍은구역 역삼구역	이진영 강석경	역삼구역 묵동구역	오현자 김미정	역삼구역 풍납구역	안만진 정해란	자양구역 반포구역	김종식 김영아	반포구역 용진구역	김경수 홍금학
역삼구역 시영구역	강석경 김석호	묵동구역 역삼구역	김미정 김설애	풍납구역 신림구역	정해란 노영기	반포구역 역삼구역	김영아 이광선	용진구역 도곡구역	홍금학 조복순
시영구역 잠원구역	김석호 이경식	역삼구역 가락구역	김설애 배영미	신림구역 묵정구역	노영기 오정희	역삼구역 잠실구역	이광선 이수남	도곡구역 가락구역	조복순 배향미
잠원구역 이태원 *	이경식 김영희	가락구역 창전구역	배영미 김근선	묵정구역 안암구역	오정희 최공락	잠실구역 역삼구역	이수남 김정식	가락구역 양재구역	배향미 강구봉
이태원 * 도곡구역	김영희 강정희	창전구역 잠실구역	김근선 김달수	안암구역 역삼구역	최공락 홍영민	역삼구역 반포구역	김정식 최정자	양재구역 화곡본동	강구봉 배정웅

부천본동	민흥기	불광구역	김춘민	중신구역	이병삼	돈암본동	납기태	자양구역	윤길자
역삼구역	송인성	역삼구역	김영신	역삼구역	최면식	양재구역	한정란	태평구역	이의진
대치구역	황춘기	잠원구역	수관우	독산구역	최선옥	신길구역	마현숙	당산구역	오형식
불광구역	이광식	남가좌 *	김을환	돈암구역	최금자	역삼구역	양혜란	역삼구역	김장현
역삼구역	조광지	서초구역	김동일	역삼구역	김호재	신사구역	이상춘	사당구역	박태성
목동구역	김춘복	가리봉 *	황인숙	아현구역	김석연	중신구역	김순애	남가좌 *	전대정
상계구역	이양례	길음구역	홍금학	신당구역	황미숙	목동구역	김영실	둔촌구역	김기용
성내구역	김은심	암사구역	서보경	응봉구역	장성규	상왕실리	박정순	이태원 *	홍철희
방배구역	박정호	역삼구역	김숙자	역삼구역	김정수	역삼구역	조은선	서초구역	박문자
논현구역	윤 순	신사구역	지인옥	방배본동	서승남	대림구역	김윤숙	독산구역	김훈자
불광구역	최채영	중신구역	천명운	신문구역	김재곤	미아구역	김미애	삼선구역	신종석
면목구역	정순자	망우구역	최영택	문정구역	김동규	전호구역	조용구	신천구역	위기배
송정구역	한정은	상왕실리	이현기	이태원 *	임민순	방배구역	백승욱	종암구역	노철용
면목구역	최경분	창안구역	이성기	문정구역	최필순	잠실구역	최옥열	신천구역	황석동
금호구역	박윤경	효창구역	안명화	이태원 *	김해정	방배구역	김순희	창위구역	김선희
용두구역	양화자	제기구역	이옥자	성내구역	장길남	고덕구역	최민수	잠실본동	김정란
옥수구역	송명애	상왕실리	정미선	후암구역	장해미	송정구역	한정은	역삼구역	오순영
역삼구역	김옥금	서초구역	김명희	도곡구역	김예순	대치구역	오정림	논현구역	손지희
개포구역	송영복	방배구역	송근태	과천구역	강순옥	사당구역	손애숙	내발산 *	정한선
창신구역	김경은	정랑구역	이용진	길동구역	임안순	잠실구역	이화춘	옥수구역	박정자
화양구역	하재수	광희구역	남승민	역삼구역	정영란	양재구역	홍순심	도곡구역	박승희
성남구역	조동철	논현구역	김숙자	개포구역	이옥순	일원구역	옥영림	흑석구역	손창열
과천구역	곽지현	오류구역	최영송	구파발 *	김진희	동송구역	윤재숙	목동구역	철선채
삼전구역	이금순	방이구역	김은영	행당구역	이수희	자양구역	서은혜	역삼구역	문진철
역삼구역	남외항	서초구역	이무형	도곡구역	김홍숙	논현구역	신무현	개포구역	송영준
일원구역	남두기	방배구역	김현정	과천구역	곽수현	가리봉 *	노한숙	홍은구역	한명물
동송구역	임창택	효창구역	홍필중	창전구역	김경철	방이구역	김순화	행당구역	이병희
화양구역	이양순	역삼구역	김성희	서초구역	최양목	도곡구역	김대영	대치구역	박창숙
논현구역	손성운	개포구역	전영수	산선구역	라복자	흑석구역	김경숙	반포구역	서현애
대림구역	이수정	창신구역	송재식	중화구역	박연옥	제기구역	이석준	잠실구역	이지은
잠실구역	신명종	성수구역	서재교	광희구역	정옥희	역삼구역	장정옥	성남구역	박종성
삼성구역	최수자	논현구역	김군일	반포구역	임춘자	가리봉 *	최영희	벽제구역	심현숙
길음구역	박해숙	창안구역	나현순	가락구역	배관석	전호구역	이영범	화양구역	최재원
효창구역	허선미	역삼구역	이범수	성남구역	남영덕	논현구역	이경남	논현구역	김성수
신길구역	김용남	시흥본동	남기에	망원구역	심미경	답십리 *	김민식	잠실구역	전경숙
고덕구역	민미현	전호구역	김순옥	성수구역	강명자	후암구역	최분기	역삼구역	지혜숙
도곡구역	정정옥	논현구역	심 희	반포본동	마종태	신월본동	송정옥	불광구역	이광식
노고산 *	최영만	이문구역	지선미	성내구역	최동림	고덕구역	김문성	잠실구역	최옥진
상왕실리	오명숙	남곡구역	남복순	삼성구역	이영환	논현구역	박지환	반포본동	박영미
인천구역	조양옥	신사구역	백미숙	미아본동	문한숙	신당구역	최 명	가락구역	조현백
고덕구역	주성림	잠실구역	강대운	동부이촌	김정림	역삼구역	김해경	서초구역	유재훈
사당구역	한철순	공덕구역	최희분	면목구역	이종옥	행당구역	이수진	역삼구역	박찬희
역삼구역	문소희	독산구역	전종수	북가좌 *	김숙희	성내구역	홍순복	역삼구역	김진희
역삼구역	성준호	독산구역	김성애	이문구역	이대규	전호구역	김영규	역삼구역	심경희
역삼구역	김영순	독산구역	김순희	상계구역	신옥환	역삼구역	김지선	대치구역	김원철
목동구역	김홍일	성내구역	최일승	방이구역	이문영	잠실구역	박상수	하왕구역	김갑철

한남구역	박용도	역삼구역	양위덕	역삼구역	윤현미	대치구역	조경백	삼성구역	권대현
사당구역	홍애경	문래구역	김옥선	통의구역	김충환	상봉구역	류인걸	구의구역	노재봉
역삼구역	박철순	역삼구역	주정순	역삼구역	양진숙	역삼구역	장이재	반포구역	김영례
안천구역	이상달	평창구역	최강남	삼선구역	정경희	필동구역	박갑수	역삼구역	맹순영
삼성구역	정원성	대치구역	방남희	반포구역	김필수	신림구역	한동열	홍은구역	오수민
도봉구역	유연숙	신천구역	김기원	도곡구역	이경희	논현구역	김현주	봉천구역	최옥심
고덕구역	김지은	성수구역	장문희	역삼구역	임미정	논현구역	옥경옥	봉천구역	김요섭
마천구역	김윤희	응봉구역	김덕엽	역삼구역	이달옥	청담구역	이현숙	신림구역	이준자
잠실구역	백제성	역삼구역	염경자	청담구역	김원홍	삼전구역	고경희	잠실구역	장유진
역삼구역	김용렌	역삼구역	김민희	서초구역	최양숙	안양구역	양영희	전농구역	이진배
행당구역	이명덕	광희구역	한옥성	역삼구역	김인순	역삼구역	박진숙	삼성구역	서경희
신길구역	곽혜숙	답십리	임경숙	행당구역	한경자	역삼구역	오철원	역삼구역	허성심
사당구역	이삼연	연희구역	윤병조	면목구역	장남순	행당구역	이수민	역삼구역	김옥동
역삼구역	신민옥	역삼구역	고영미	역삼구역	박정현	역삼구역	박혜정	역삼구역	이정희
역삼구역	김용호	역삼구역	한건석	역삼구역	이필분	역삼구역	안경자	역삼구역	안경자
세곡구역	양희례	단대구역	김동분	단대구역	윤이순	개포구역	김원준	개포구역	박병혜
대치구역	김태진	일원구역	하옥순	개포구역	박명자	논현구역	김지완	논현구역	신숙자
반포구역	조솔연	반포구역	김옥걸	부천구역	박종철	인천구역	최예순	연희구역	윤병조
신당구역	김은순	상봉구역	전복숙	전농구역	전만봉	길동구역	조윤자	삼성구역	유경미
잠실구역	강춘희	송파구역	박시준	송파구역	남인희	잠실구역	선기성	잠실구역	박천희
잠실구역	임성민	잠실구역	천정호	자양구역	이재혁	필동구역	김인순	필동구역	심봉덕
필동구역	김은자	이태원	안영수	역삼구역	김민경	역삼구역	김중수	역삼구역	김수한
역삼구역	이민자	역삼구역	기영준	역삼구역	김향미	역삼구역	정연숙	역삼구역	임병식
역삼구역	이일순	서초구역	문은희	개포구역	정재실	개포구역	오혜숙	대치구역	조재순
신사구역	송영숙	신사구역	원순성	논현구역	황기자	암구정	홍일성	암구정	이명자
암구정	홍정환	암구정	홍서연	신사구역	홍정선	주공구역	임두진	신림구역	천미자
남천구역	오경자	사당구역	류경희	부천구역	전윤성	염창구역	이병숙	화곡구역	류병연
등촌구역	오명순	부천구역	신유식	구피발	서석환	효자구역	김 경	대현구역	김미경
우이구역	고창남	석관구역	정요순	석관구역	이영미	창동구역	황남호	면목구역	신경호
면목구역	정삼순	성내구역	신옥자	주공구역	이승재	성수구역	홍영선	성수구역	김정순
자양구역	임남희	필동구역	어승우	이태원	김순희	광희구역	김영환	역삼구역	박경순
남양구역	조정원	역삼구역	박경희	역삼구역	이선미	역삼구역	이순희	역삼구역	최길봉
역삼구역	이강진	서초구역	김정숙	서초구역	민문홍	서초구역	김영순	개포구역	권순희
논현구역	이덕순	방배구역	문경화	봉천구역	이춘애	봉천구역	조금중	부천구역	최운학
광명구역	양성보	신길구역	김명숙	망원구역	김인숙	상계구역	정연배	상계구역	정연기
광주구역	강영화	암사구역	홍영숙	명일구역	박일태	상일구역	차윤주	신천구역	이인선
송파구역	이희금	왕십리	김복실	능동구역	이수철	능동구역	장혜숙	능동구역	이서원
자양구역	김영태	구의구역	황미선	원효로	윤덕철	광희구역	정희정	광희구역	한옥성
종무로	황석삼	역삼구역	김경순	역삼구역	이영희	역삼구역	김보성	역삼구역	김명아
역삼구역	강정선	도곡구역	이경미	서초구역	방형인	도곡구역	강 천	도곡구역	최은경
개포구역	임 정	논현구역	한민경	논현구역	정정운	방배구역	김영희	봉천구역	유성애
봉천구역	홍경모	신월구역	조현욱	고양구역	안성집	고양구역	김순희	동소문	구자순
신당구역	서정철	신당구역	전영주	신당구역	서영미	제기구역	신영숙	제기구역	안용한
성내구역	조윤희	성내구역	조유남	성내구역	김영하	방이구역	김상옥	방이구역	이부자
하원구역	박종복	갈월구역	류창철	인현구역	김종명	인현구역	원추자	독산구역	이선형

결혼

▲박희준군과 이미경양(4부 천양대원) 6월 16일 오후 1시

▲신광운군(신계택장로 임금진집사 아들)과 이해경양 6월 18일 오후 1시

▲우해식군과 김연식양(충현3구역 김오례성도 딸) 6월 25일 오후 4시

▲천경호군과 백영선양(백기영집사 백영자집사 딸) 6월 28일 오전 11시

▲김영근군(김흥곤집사 김봉선권사 아들)과 신경실양 6월 28일 오후 2시

▲고창남군과 조명희양(중등부교사 서기순씨 딸) 6월 30일 오후 3시

▲이규환군(인현구역 유화자집사 아들)과 정경아양 8월 1일 오후 1시

▲오근철군(오정일씨 김순옥집사 아들)과 우영제양(우성원장로 손녀 우인구씨 서춘자집사 딸) 8월 2일 12시

▲김갑규군과 방홍숙양 8월 27일 오후 4시

▲김종운군(중등부교사)과 이현주양(이충현씨 김옥래권찰 딸) 9월 1일 오후 2시

▲김진석군(김태현집사 이금옥권사 아들)과 락노숙양 10월 1일 12시

▲김장태군(김종연집사 이인경권사 아들)과 장경순양 10월 1일 오후 1시

30분

▲송석운군(소사)과 김소현양(역곡) 15일 12시

▲이은용군과 홍영신양(초등부교사) 15일 오후 1시

▲김호팔군(김성태·전계설집사 아

들)과 이경숙양 15일 오후 3시 30분

▲장흥석군(청년부회원)과 김은희양(청년부회원) 10월 3일 오후 1시

▲임영기군과 이미라양(이귀애집사 딸) 10월 3일 오후 2시

▲이경섭군(이지은집사 아들)과 장영희양(이순희집사 딸) 10월 8일 2시

▲이주훈군(이호근·김숙기집사 아들)과 조성심양 10월 8일 오후 4시

▲윤덕철군과 박미옥양(박희봉성도의 딸) 10월 8일 오후 1시

▲신흥영군과 안동희양(김정화집사 딸) 10월 8일 오후 2시 30분

별세

▲최동규집사(자양구역 김은애권사 부군) 6월 15일 별세

▲송리명집사(논현구역 유정수권사 부군) 6월 16일 별세

▲김용선집사(갈현1구역 오영자집사 부군) 6월 16일 별세

▲조필숙집사(박철훈장로 장모) 6월 24일 별세

▲곽복순권찰(창담2구역) 6월 24일 별세

▲김재석성도(영동3구역 장영숙성도 부군) 6월 27일 별세

▲김양준성도(인천구역) 6월 27일 별세

▲김동규성도(흑석구역 성계동성도 부군) 7월 2일 별세

▲이흥식성도(백차순권사 아들) 7월 8일 별세

▲문이검씨(필동2구역 김가연권사 부군) 7월 28일 별세

▲홍연효권사(전영복집사 모친) 8월 3일 별세

▲송병하집사(원당구역 이금순권사 부군) 8월 6일 별세

▲조누이사씨(박우순권사 모친) 8월 17일 별세

▲오상익성도(오태희장로 부친) 8월 29일 별세

▲박석진성도(2교구 서초지역) 8월 30일 별세

▲진학봉성도(8교구 허명호집사 장모) 9월 3일 별세

▲최양목성도(서초15구역 여중옥집사 아들) 9월 5일 별세

▲윤옥심성도(상내구역 최봉순권사 자부) 9월 6일 별세

▲안행열성도(12교구 이구연 양명자 집사 모친) 9월 8일 별세

▲유감순권사(충현1구역 정상수 정영덕 정옥남집사 모친) 9월 12일 별세

▲김귀선성도(김춘복씨 부친) 9월 21일 별세

▲최석길집사(양재2 임옥순권사 사촌 동생) 10월 2일 별세

▲유장환성도(장영미권찰 부군) 10월 2일 별세

9·10월의 행사

□ 교회행사

8월 15일~10월 30일 / 충현 암송성경
제작

8월 24일~8월 31일 / 여리고작전

8월 28일 / 영어예배 창설 감사예배

9월 2일~9월 3일 / 자선바자회

9월 4일 / 교회설립 35주년 기념예배

9월 4일 / 장기 근속자 수상

9월 4일 / 재 상봉의 날

9월 8일 / 살롬 경로대학 개설예배

9월 10일 / 사랑부 개교 예배

9월 11일 / 소석관 봉헌예배

9월 11일 / 교회설립 35주년 자선 음
악예배

10월 8일 / 에바다부 개교예배

□ 당회

7월 10일 / 임시 당회

8월 3일 / 7월 정기당회

8월 10일 / 임시당회

8월 14일 / 임시당회

8월 31일 / 8월 정기당회

9월 30일 / 9월 정기당회

□ 제직회

7월 3일 / 7월 정기제직회

8월 7일 / 8월 정기제직회

9월 4일 / 9월 정기제직회

□ 예배위원회

10월 9일 / 제 4 차 성례식

□ 교육위원회

7월 3일 / 성경연구원 수료식

7월 18일 / 8월 27일 / 여름계절학교
10월 16일 / 유·초·소년부 어린이 초청
잔치

10월 22일 / 중등부 시와 찬양의 밤

□ 출판국

7월 24일 / 충현의 만나 8월호 발행

8월 21일 / 충현의 만나 9월호 발행

9월 18일 / 충현의 만나 10월호 발행

10월 23일 / 충현의 만나 11월호 발행

10월 23일 / 월간충현 9·10월호 발행

□ 감사

9월 11일, 18일 / 정기 감사

편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원고청탁 하기도 힘들지만
청탁한 원고를 받아 내기는 더욱 힘든것 같다.

집

이번호에 원고를 투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먼
저 감사를 드리고 많은 성도들의 질책과 격려, 또한
살아호흡하는 투고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
절하다.

후

9 월은 교회설립 35주년 기념행사의 달이었다.

기

오늘의 충현교회가 있기까지의 은혜를 주신 하나
님께 감사드리고 설립 35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
가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봉사로 하나 하나씩 열매
로 영글고 있다. 이번호에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각
종 행사들을 사진과 함께 그 내용을 특집 화보로
꾸몄다.

지난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있었던 여리고작
전의 특강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참석치 못한 성도
들과 다시 나누고자 지면을 할애 하였다.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 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월간 충현

1988년 9·10월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88년 10월 20일 인쇄

1988년 10월 23일 발간

발행인/이	종	윤
편집인/김	차	생
주간간/김	장	근
편집장/이	응	선
편집위원/김	의	경
	윤	규
	최	석
	조	주
	손	근
	김	수
		연
		이

발행처 /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62-4181~5

